

인천대학교 일본지역문화학과 소모임 아이

아이
2026 상반기

그들의 주는
이야기를 머금고
홀로 본 하늘

© 2026. AI all rights reserved.

2026 상반기 아이

인천대학교 일본지역문화학과



붉게 익어가지만
미친 듯 피어난다

© 2026. AI all rights reserved.

소식지 아이 2026년 상반기

통권 제 11호

발행처 아이

이지수 이진서 김수진 채수정 이지원
서다설 오지민 이은서 이예준 이태인
양승우 박서연 배서현 김예나 윤재연
김혜은 곽현수 최재웅 최영진 고원준
이승주 강니키타 김하늘 이현영 오지민
곽나림 최현서 김태현 오민준

2026 상반기 아이에 들어가며..

적는 게 의미 있을까 싶다가도, 학과 생활을 하면서 내 언어로 자유롭게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 싶어 적어봅니다.

아이가 뭔지 아직도 모르시면...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지요.
아이는 일본지역문화학과를 기록합니다. 아이의 시작은 서브컬쳐 소모임 코이의 활동을 기록하며 출발했지만, 현재는 독립하여 학과의 여러 이야기를 담아두고 있습니다.
저는 열한 번째 아이를 맡은 25학번 오민준입니다.

고등학생 시절 일본지역문화학과 홈페이지에서 아이를 읽고 학과에 들어오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마주하게 된 아이는 어딘가 외로워보였습니다. 읽는 사람도 적고, 아이는 뭐하는 소모임인지, 아니 그전에 아이라는 소모임도 있는지 모르는 학우가 많았습니다.

부장직을 권유 받았을 때, 다른 소모임이었으면 절대 안했을 것 같지만 오랜 시간 고민하며 앞으로 계속 될 아이 역사에 흔적 한 번 살포시 남겨보자 하는 생각으로 부장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아이는 무엇이며, 왜 존재할까요. 독자는 누구이고, 존재조차 인식되지 못한 채 어딘가에 방치된 이 종이 덩어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원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부장이 되고 나서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물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학과를 졸업하고, 스스로 자립하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이라는 세기가 끝날 때, 지금의 아이를 다시 꺼내본다면 어떨까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것의 가치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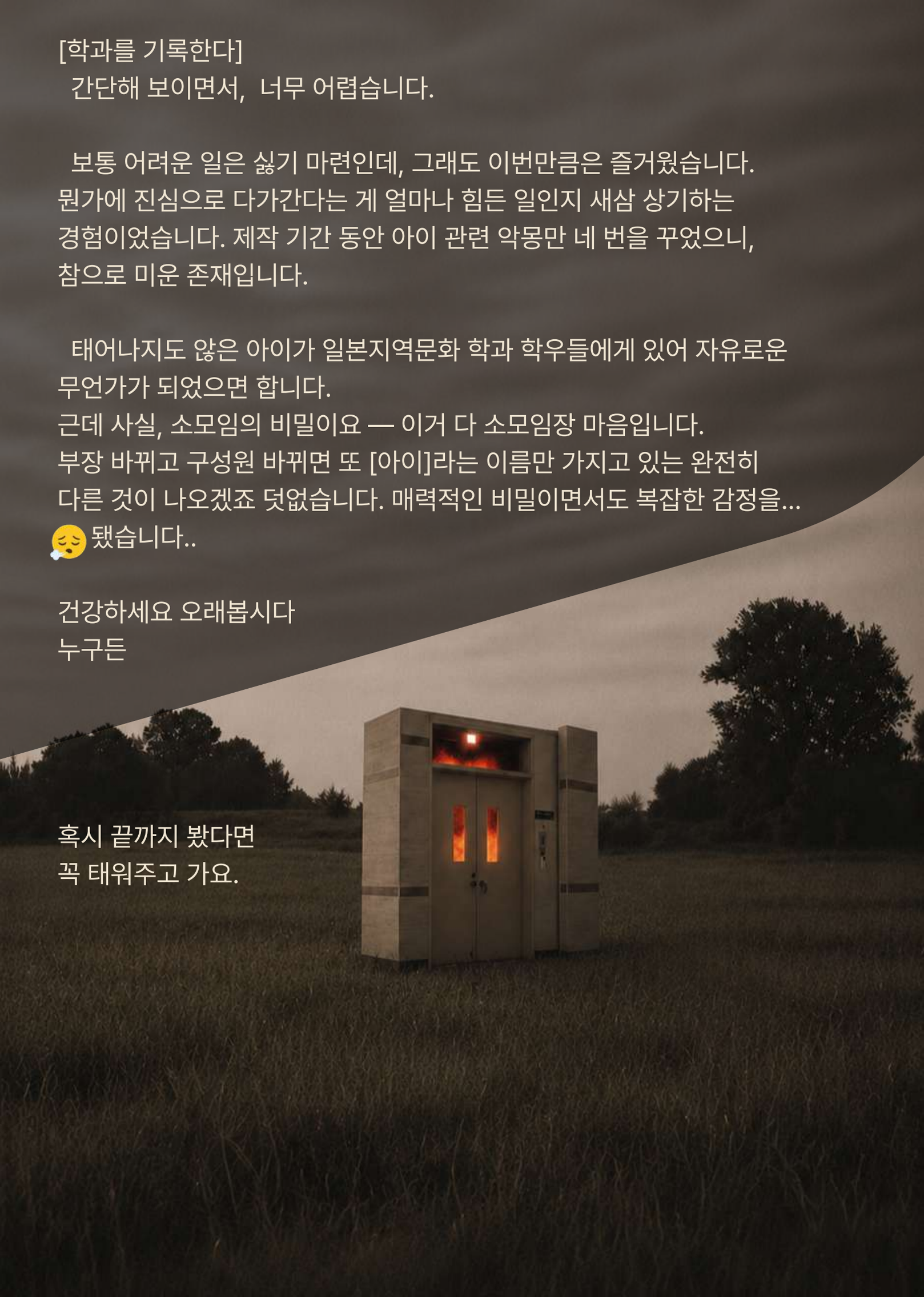
아이 속 이야기는 지극히 개별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보편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과를 기록한다]
  간단해 보이면서, 너무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은 싫기 마련인데, 그래도 이번만큼은 즐거웠습니다.
뭔가에 진심으로 다가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상기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제작 기간 동안 아이 관련 악몽만 네 번을 꾸었으니,
참으로 미운 존재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일본지역문화 학과 학우들에게 있어 자유로운
무언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사실, 소모임의 비밀이요 — 이거 다 소모임장 마음입니다.
부장 바뀌고 구성원 바뀌면 또 [아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완전히
다른 것이 나오겠죠 덧없습니다. 매력적인 비밀이면서도 복잡한 감정을...
😮‍💨 됐습니다..

건강하세요 오래봅시다
누구든



혹시 끝까지 봤다면
꼭 태워주고 가요.

진심 하나로 달려온 반년
– 학생회 혼키(本気) 소개–

에디터 최재웅
디자인 이진서

제40대 학생회 혼키(本気)의 이름은 일본지역문화학과 학우들을 위해 진심(本気)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약속은 한 학기 동안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졌다. 학생회는 과방 정리와 환경 개선을 시작으로 예비대학, 졸업식, 새내기 새로 배움터, 개강총회, 연합 MT, 대동제 주점 운영 등 학우들이 함께하는 크고 작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운영했다.

학생회의 첫 활동은 학우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의미를 두었다. 노후화된 소파와 책상을 새롭게 교체하고, 학과 물품을 정리하며 과방을 더욱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했다. 이는 학우들의 편안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회의 첫 실천이자,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신뢰를 쌓겠다는 약속의 표현이었다.

과방 정리를 마친 학생회는 곧이어 예비대학 준비에 돌입했다. 새로운 학기를 앞두고 26학번 신입생들이 낯선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선배들과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회의를 거듭하며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학생회의 첫 공식 행사였던 예비대학은 26학번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의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학생회는 행사 시작부터 신입생들을 맞이하고 캠퍼스를 함께 이동하며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으며, 캠퍼스 투어와 교수 연구실 방문을 통해 학교와 학과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어진 학과 행사에서는 학과 소개, 교수님 말씀, 소모임 소개 등을 진행하며 신입생들이 일본지역문화학과의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후 진행된 새내기 새로 배움터는 신입생들이 일본지역문화학과의 일원으로 첫 추억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학생회는 무엇보다도 신입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레크리에이션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우승 상품까지 준비하며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긴 이동과 일정으로 다소 지친 모습이었지만, 뒤풀이와 학과 행사, 인문대 프로그램을 거치며 신입생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워졌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





本気

을왕리에서 진행된 일본지역문화학과 연합 MT는 약 70명의 학우와 교환학생이 함께하며 선후배 간의 거리를 좁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학생회는 실외·실내 레크리에이션과 바비큐 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모두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며, 학우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으로 행사의 즐거움을 더했다. 또한 교수님과 조교님의 방문과 따뜻한 격려는 MT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고, 공식 일정 이후에도 이어진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학과 구성원들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돌아봤을 때 미소 지을 수 있는 1년을 선물한다.' 이처럼 혼키는 그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학우들과 함께 2026학년도 1학기를 만들어 왔다. 앞으로도 학생회가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라며, 혼키의 진심이 학우 여러분의 기억 속에 따뜻한 한 해로 남기를 기대한다.





本気

낯선 학과가 익숙한 공간이 되기까지

에디터. 박서연
디자인. 이지원

합격의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였던 신입생은 예비대학과 새내기새로배움터를 거치며 일본지역문화학과와 조금씩 가까워졌다. 낯설기만 했던 학과가 점점 익숙한 공간으로 바뀌어 간 두 번의 순간을 돌아본다.

예비 대학





면접 후 예비번호를 받아 결과를 기다리다 합격 소식을 확인한 순간, 기쁨보다 먼저 긴장감이 밀려왔다.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몰랐고, 일본 문화나 지역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내가 이 학과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과를 처음 만나는 자리인 예비대학은 설렘만큼이나 떨리는 행사였다.

면접을 보기 위해 찾았던 캠퍼스에서 이제는 학생으로 생활하게 된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 나지 않았다. 처음 만난 동기들과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는 선배들을 만나며 조금씩 긴장이 풀려가는 것을 느꼈다. 낯설기만 했던 공간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학과 소개를 들은 뒤에는 동기들과 함께 첫 학식을 먹었다. 대학 학식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걱정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괜찮다는 첫인상을 받았다. 무엇보다 함께 식사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 더 기억에 남는다.

이어진 캠퍼스 투어에서는 앞으로 자주 이용하게 될 강의실과 교수님 연구실 등을 둘러보며 학교를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소모임 소개 시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열 개가 넘는 소모임을 한 번에 소개받다 보니 이름이 모두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어떤 활동에 참여해 보고 싶은지 막연하게나마 그려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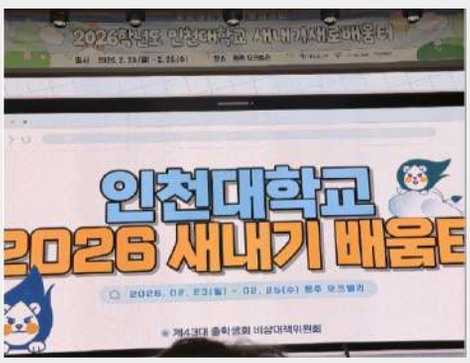
모든 일정이 끝난 뒤에는 조를 바꿔 선배, 동기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회 선배뿐 아니라 휴학 중인 선배들도 함께해 학교생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학과의 장점뿐 아니라 실제로 생활하며 느꼈던 점들을 솔직하게 들을 수 있어, 홈페이지나 안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학과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예비대학을 통해 인천대학교 일본지역문화학과라는 새로운 집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진 느낌을 받았다. 홈페이지로만 접했던 그 공간에 내가 합류하게 된다는 사실도 조금씩 실감이 났다. 여전히 떨렸지만, 그만큼 앞으로의 대학생활이 기대되기도 했던 시간이었다.

새내기 새로 배움터



2월 말, 학교가 우리를 다시 불렀다. 송도가 아닌 원주로.
말로만 듣던 새내기새로배움터(이하 새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니. 새내기라면 한 번쯤 기대하는 행사인 만큼, 적지 않은 설렘을 안고 원주행 버스에 올랐다.
첫날 대강당에서 진행된 일정만 해도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같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단과대별 행사가 시작되자 비로소 "아, 이게 새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회 선배들이 준비한 공연을 보고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며, 예비대학 때는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동기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과별 행사에서는 조를 나누어 함께 시간을 보냈다. 여러 매체에서 보았던 술게임이 익숙한 사람도 있었고, 처음이라 규칙을 몰라 연달아 걸리는 친구들도 있었다.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주량을 가늠하지 못하는 모습도 새내기다운 풍경 중 하나였다. 무엇을 했는지보다도 함께 웃고 떠들며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져 갔다는 점이 더 기억에 남는다.
둘째 날에는 26학번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중앙 행사가 진행되었다. 전문 MC의 진행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고, 밴드와 댄스, 연극 등 여러 중앙동아리의 찬조공연도 관람할 수 있었다. 대학에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활동이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한 시간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선배들과 조를 이루어 학교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모임 활동부터 교수님 수업, 과 생활, 수강신청 팁까지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새터가 끝난 직후 바로 수강신청이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선배들의 조언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이후에는 몇 개의 조가 함께 모여 마피아 게임을 하기도 하고,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어떤 자리에서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같은 취미 이야기가 이어졌고, 또 다른 자리에서는 평범한 대학생활과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며칠 전만 해도 서로 이름조차 낯설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새벽 6시가 되어서야 긴 하루가 마무리되었다. 숙취와 피곤함을 안고 송도로 돌아오는 버스에 올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 대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예비대학에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면, 새터에서는 앞으로 함께 대학생활을 만들어 갈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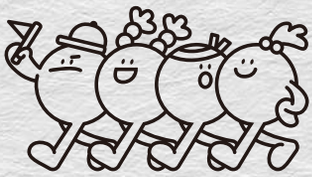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벌써 1학년 1학기를 마쳤다. 새터에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던 동기들은 이제 학교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밥을 먹고, 공강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때는 낯설기만 했던 일본지역문화학과도 이제는 제법 익숙하게 느껴진다. 돌이켜보면 예비대학과 새터는 대학생활이 시작됐다는 걸 가장 먼저 실감했던 시간이었다.

에디터. 박서연

일본지역문화학과 소식지 아이

디자이너. 이지원

어색했던 우리가 친구가 되기까지



예비대학과 새내기새로배움터를 거치며 얼굴 정도는 익숙해졌지만, 같은 학과라고 해서 모두가 금세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름은 알지만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 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먼저 말을 걸기에는 아직 조금 어색한 사이도 많았다. 그런 우리를 조금 더 가까워지게 만든 행사가 바로 개강총회와 MT였다.

개강총회

개강총회(이하 개총)는 학생들의 개강을 맞아 학과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입장과 함께 랜덤으로 정해진 자리 덕분에 평소라면 쉽게 말을 걸지 못했을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 학생회 선배들뿐 아니라 처음 뵙는 선배들도 함께 자리했는데, 모두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긴장도 금세 풀렸다.



시간이 지나며 자리는 자연스럽게 흐트러졌다. 친한 사람이 있는 테이블로 옮기기도 하고, 더 이야기해 보고 싶었던 선배에게 다가가기도 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조용히 앉아 있던 사람들이 어느새 여기저기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조금씩 학과 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1차가 끝난 뒤에는 26학번 동기들과 함께 네컷사진을 찍었다. 작은 부스 안에 옹기종기 모여 사진을 찍는 순간, '아, 진짜 대학생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 한 장이었지만, 그날의 분위기까지 함께 남겨 두는 것 같았다. 늦은 시간까지 남은 사람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학교 주변을 걸었다. 새벽 공기를 맞으며 술기운을 빌려 평소라면 하지 못했을 이야기들을 꺼내기도 하고, 별것 아닌 농담에도 크게 웃었다. 친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 같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개총은 학과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 자리였던 것 같다.

📖 MT

3월 중순, 우리는 을왕리로 MT를 떠났다. 인생 첫 대학 MT였던 만큼 출발하기 전부터 모두 들뜬 분위기였다. 바다의 윤슬이 화려하게 빛날 만큼 화창했던 날, 우리는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해변으로 향했다. 기대했던 대학생활 속 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 것만 같았다.

학생회 선배들과 일본 교환학생이 함께한 조별 레크리에이션에서는 다양한 게임을 하며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응원했다. 게임 하나에도 크게 웃고 함께 뛰어다니다 보니, 아직 서먹했던 사람들과도 금세 가까워질 수 있었다. 승패보다도 모두가 함께 즐겼던 분위기가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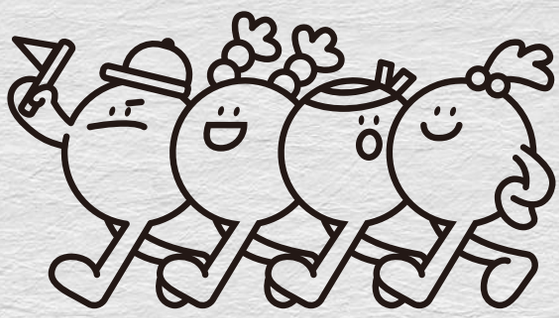
숙소로 돌아온 뒤에는 실내 레크리에이션과 바비큐 파티가 이어졌다. 선배들이 구워 주신 고기를 먹으며 학교생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동기들과 앞으로의 대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예비대학과 새터에서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같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MT를 즐겼다. 노래방 기계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술게임을 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자리도 있었다. 바다로 나가 폭죽을 터뜨리며 밤바다를 걷는 사람들도 있었다. 밤바다에서 폭죽을 터뜨리며 뛰어노는 경험은 정말 오랜만이었기에, 그 순간만큼은 1학년답게 낭만을 즐긴 것 같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동기들과 MT 이야기를 할 때면 그날 걸었던 바다와 함께 터뜨렸던 폭죽 이야기가 나온다. 예비대학에서 처음 인사를 나누고, 새터에서 조금씩 가까워졌다면, 개총과 MT에서는 함께 웃고 추억을 만들며 정말 친구가 되어 갔다. 앞으로도 더 많은 행사가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대학생활을 가장 닮은 봄으로 오래 기억될 것 같다.



서브컬처를 통해 이어진 한·일 학생 교류
- 분쿄대학 서브컬쳐 교류회

에디터 : 최재웅
디자인 : 고원준

낯선 사람과의 첫 만남은 언제나 어색함을 동반한다. 하지만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어색함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진다. 서브컬처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가 되기도 한다.

지난 3월 16일, 서브컬처 소모임 코이(KOI) 구성원들은 일본 분쿄대학 학생들과 함께 서브컬처를 주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양국 대학생들이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등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행사는 먼저 팀전으로 진행된 음악 퀴즈로 시작되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보카로, J-POP 등 다양한 서브컬처와 관련된 음악이 문제로 출제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정답을 맞히기 위해 노력했다. 알지 못하는 곡은 서로 알려주고, 같은 곡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금세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 레크리에이션 시간은 서로가 좋아하는 작품과 아티스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서 웃음이 터지거나, 서로의 추천곡을 소개하는 모습은 퀴즈 이상의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남은 시간 동안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프리토킹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각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음악, 캐릭터 등 다양한 서브컬처 콘텐츠에 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취향을 공유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즐기는 콘텐츠나 문화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모두 존재했다. 같은 작품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작품의 명장면이나 좋아하는 캐릭터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또한 단순히 콘텐츠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해당 작품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최근 관심 있는 장르가 무엇인지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다. 언어적인 차이로 인해 표현이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교류를 통해 서브컬처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국적과 언어를 초월하여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하나의 문화라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같은 작품을 좋아한다는 공감대는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편안하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활동은 서브컬처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매개로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글로벌 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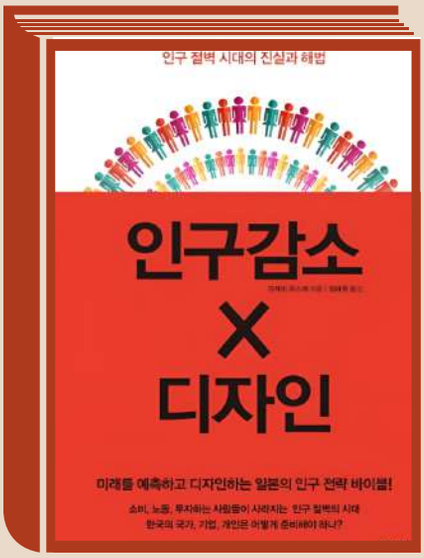
일본지역문화학과 소식지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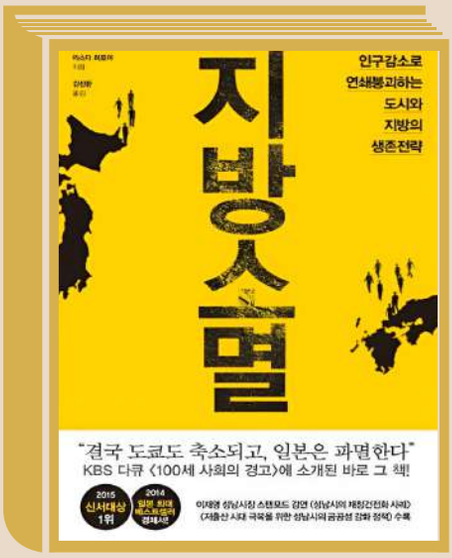
코코도코 상반기 총 결산

에디터 이태인
디자인 이진서

지난 학기, 소모임 코코도코는 틈틈이 지역학 스터디 모임을 가졌고, 더욱 효과적으로 지역학을 이해하기 위하여 스터디 활동을 바탕으로 한 당일치기 강화도 답사를 다녀왔다.

스터디 활동으로는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큰 사회 문제인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한 책인 '인구감소 X 디자인'과 '지방 소멸'을 바탕으로 4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를 위해 모였습니다. 스터디의 진행 방식은 선정된 책을 읽고, 책 내용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강화도 답사로는 5월 17일, 부장을 포함한 총 7명이 참여하였다. 답사 주제는 '수도권 관광지의 이면: 강화도의 인구감소와 지역 경제'로, 강화도의 취약한 교육·정주 환경과 산업 기반으로 청년 유출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수도권이라는 좋은 위치성에도 불구하고, 강화도가 인구감소를 고 있는 것과 그에 대한 강화도의 대응 방법을 직접 알아보고자 하여 답사를 기획하였다.

07/20/20XX

일본지역문화학과 소식지 아이

주요 답사지로는 강화도의 대표적인 지역 상권인 ‘강화풍물시장’에서 시작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통해 오래된 직물공장을 새롭게 바꾼 ‘소창체험관’과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 등을 방문하였다.

실제로 걸어본 강화 원도심은 예상보다 더 고령화가 진행되어 있었다. 학생을 찾기 힘들 정도로 어르신들이 많으셨고, 중심 거리를 벗어나면 빈 점포도 눈에 띄게 많았다. 다만 옛 공장들을 리모델링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며 사람을 다시 불러 모으려는 강화군의 노력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나가며

이번 강화도 답사를 통해, 스터디로만 접했던 '지역학'이라는 개념을 실제 공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답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아닐까요? 지역학 소모임 코코도코는 앞으로도 스터디 모임과 답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학기 활동도 기대해 주세요!

함께 만든 하모니, 히비키의 1학기 결산

에디터. 이예준
디자인. 최영진

히비키는 일본지역문화학과(이하 일지문)의 밴드 소모임이다. 히비키는 합주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거나, 일지문의 가장 큰 행사인 일문인의 밤에서 라이브 공연을 진행하는 등 jpop이라는 소재를 활용해 학생들의 음악적 소양과 전공 역량을 마음껏 뽐내고 있다. 이번 1학기에도 역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신입 부원들과 기존 부원들이 의기투합해 좋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열정으로 가득 찼던 올해 1학기 히비키의 소모임 활동을 되돌아보기 위해, 부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히비키의 1학기를 정리해 보았으며, 히비키의 2학기 방향성을 미리 들여다보았다.

부장과의 인터뷰

(1) 1학기 히비키는 어떤 활동을 진행했나요?

개강 이후 1학년과 새 부원을 받고 오티를 진행했습니다. 공연 곡이나 합주 팀을 정하고 각자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 나갈지 결정하고 회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일밤 공연 희망자가 많았기 때문에 오디션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참가자 모두가 굉장히 노력한 모습이 보였고, 엄청 잘 부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1학기 시험 기간 이후에는 합주하고 인스타에 게시도 하였습니다. 남은 시간은 별로 없었지만 1학기가 지나기 전에 2학년 동기들과 함께 합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시면 히비키 인스타 계정 게시물을 확인해주세요. 종강 전에는 일문인의 밤 합주자 모두가 모여서 최종적으로 곡을 결정하고 순서를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빠르게 1학기가 지나간 것 같네요.

(2) 히비키 부장으로서 1학기를 끝마친 소감이 궁금합니다.

*사실 2학년에 들어서 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부담도 있었지만 그만큼 히비키를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은 많았지만 예상보다 별로 한 것이 없는것 같아서 살짝 슬프네요. 그래도 2학기 전까진 합주영상도 여러개 올리고, 일밤 준비도 차근차근 되어가고 있어서 안심입니다. 앞으로 시험공부, 알바 등 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지만 저의 1순위는 항상 히비키입니다..^^*

(3) 2학기에는 어떤 활동이 예정되어 있나요?

2학기는 일문인의 밤이라는 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히비키는 일밤의 꽃이라고 볼 수 있죠. ㅎㅎ 히비키에서는 일밤 공연을 위해 1학기 종강 이후부터 열심히 연습해 왔습니다. 밴드는 일렉, 드럼, 베이스, 신디, 보컬이 모두 함께 호흡을 맞춰 하나의 무대를 완성하는 활동인 만큼,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어려움이 생기고 부족함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원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연습하며 더 좋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첫 모임!!







합주하면서

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히비키의 1학기 활동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다. 히비키는 1학기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신입 부원과 기존 부원이 서로 첫인사를 나누는 OT부터 파트 오디션, 연주 영상 촬영까지, 순식간에 지나갔던 히비키의 1학기를 되돌아보며 소모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 일문인의 날 공연 등, 히비키의 2학기 또한 미리 볼 수 있었다. 작년 일문인의 밤, 히비키의 공연이 행사의 피날레를 완벽하게 장식했던 만큼, 올해도 히비키의 연주가 몹시 기대된다. 부장을 비롯한 히비키 전원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며, 앞으로의 모든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유메카라는 신입 부원을
간절히 원합니다..

유메카라는 퀄리티
높고 엄청난 곳입니다..

타노쉬~!
일본지역문화학과
보드게임 제작 동아리, 유메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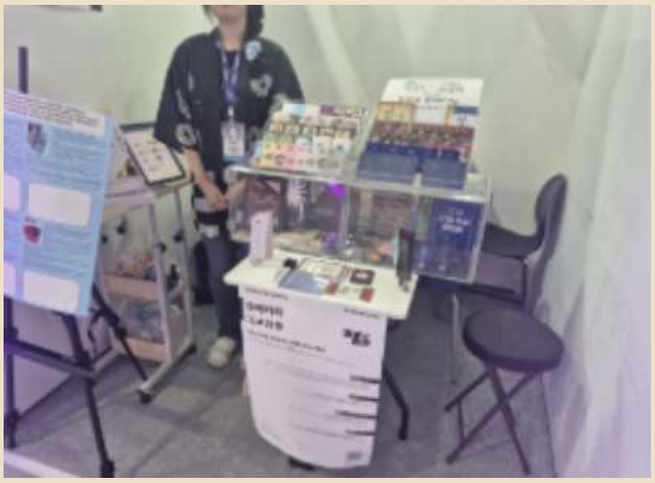


에디터. 김수진
디자인. 오민준

유메카라는 신입 부원을
간절히 원합니다..



유메카라는 신입 부원을
간절히 원합니다..



보드게임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인천대학교의 보드게임 제작 동아리 유메카라(ユメカラ)에서는 이러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게임의 규칙을 구상하는 것부터 디자인, 플레이 테스트까지 학생들이 함께 협력하며 하나의 보드게임을 완성해 나간다.
이번 호에서는 유메카라의 활동과 동아리만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유메카라 부장 김*은 학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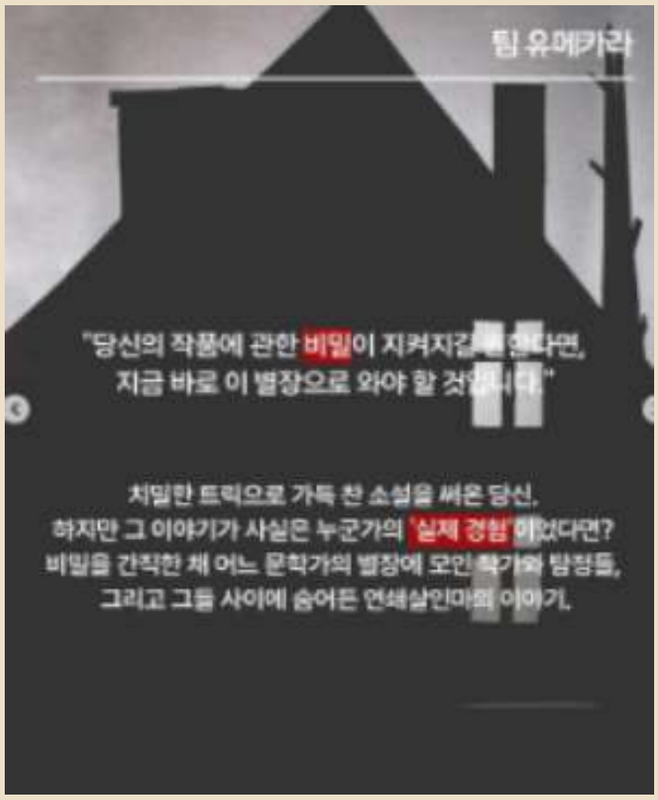


자기소개와 동아리에서 맡고 있는 역할을 소개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소모임에서 부족하지만 부장을 맡고있는 24학번 김희은입니다. 주로 디자인 쪽, 캐릭터쪽을 맡고 있습니다.

유메카라는 어떤 동아리인가요?
- 보드게임 제작 소모임으로, 기획팀이 낸 게임을 디자인팀에서 제작해 공모전 등에 출품하고 있습니다.

유메카라는 퀄리티
높고 엄청난 곳입니다..

어떤 활동을 하나요?
- 주로 보드게임 제작 활동을 하며, 해당 보드게임을 홍보하는 부스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개총, 종총 때에는 보드게임 플레이도 직접 해보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 단계
나아가는 경험을 주고 싶다면
유메카라로..

가장 인기 있는 보드게임은 무엇인가요?
- 아무래도 가장 초기에 기획해 지금까지 수정을 거듭해 와 완성도가 가장 높은 「문학가의 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학가의 집은 일본 근대 문학가들을 모티브로 한 탐정 캐릭터가 나오는 탐정vs살인마 머더미스터리 추리보드게임으로, 유명 보드게임인 「클루」와 비슷하지만 더 세분화된 단계로 높은 게임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동아리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실제 보드게임을 제작해본다는 성취감과, 여러 활동을 통한 효능감 달성입니다.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나요?
- 솔직히 말해 초보자가 마음 편히 참여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양도 많고 퀄리티도 요구합니다. 그러나 조금 미숙해도 앞선 선배들이 피드백과 리터칭을 진행합니다. 열정만 있다면 참여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 최근 보드게임콘이라고 하는 행사에 감사하게도 작가존 부스 운영으로 참가하였습니다. 4일이라는 기간 동안 부스를 운영하며 힘들기도 했지만 많은 손님분들께 저희가 직접 제작한 보드게임을 보여드리고, 실체험 시켜드리며 여러가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성취감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입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보드게임 제작에 진지하게 관심이 있으신 분, 결과를 남기고 싶으신 분, 포폴을 만들고 싶으신 분 모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010-7471-1219/카톡 아이디: fore1219
인스타 아이디: inu_yumekara

스스로에게 한 단계
나아가는 경험을 주고 싶다면
유메카라로..

소모임 결산
토토로!

에디터 : 곽현수
디자인 : 고원준

Q. 토토로가 뭔데요?

A. 토토로는 2016년에 시작된 일본지역문화학과의 최장수 국제 교류 소모임입니다. 학과 재학생, 교환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교류하고, 자연스럽게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Q. 그래서 뭘 했나요?

A. 이번 1학기에는 환영회, 남산타워 방문, 야구 관람, 송별회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남산타워에서는 함께 한옥 마을을 둘러보고, 전망대에서 서울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이동하고 구경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A. 야구 관람 활동에서는 다 함께 야구장을 방문해 경기를 응원했습니다. 야구를 잘 모르는 학생들도 한국 야구장 특유의 응원 문화와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A. 작년과 활동 내용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매년 다른 교환학생분들이 오신다는 거죠^^.

Q.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A. 현재 새로운 집행부와 차기 부장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망설여진다구요? 일단 나가서 싸우세요. 순간 순간마다 싸우셔야 합니다. 저는 그거. 여러분 기다려보겠습니다.

모리 상반기 총결산

에디터. 이태인
디자인. 이은서

지난 학기, 독서 소모임 모리는 11회와 12회 모임, 총 두 번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11회 모임은 오 민 학우가 선정한 구단 리에의 '도쿄도 동정탑'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도쿄도 동정탑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태어난 '최초의 피해자'라며, 동정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을 최첨단으로 지어진 호화로운 탑에 지내게 한다는 줄거리입니다. 또한, 도쿄도 동정탑은 생성형 AI를 사용한 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토론 동안 AI가 인간 작가를 대체할 수 있는지 등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AI에 관련된 내용과 성악설과 성선설, 자유 의지 등 작품 속의 핵심 주제들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외에 다루었던 내용 중에는, 도대체 왜 아쿠타가와 수상작, 더 나아가 일본 문학 작품에는 성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는 것인지에 대해 열띤 논쟁이 있었습니다. 각 학우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회 모임에선, 이O인 학우가 선정한 아베 코보의 '모래의 여자'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래의 여자'는 아베 코보의 실종 3부작 중 하나로, 인간의 본질을 다룬 실존주의 문학으로 유명합니다. 책 속 주인공은 새로운 곤충을 채집하기 위해 도착한 모래 언덕 마을에서 주민들의 계략으로 한 여자가 있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그곳에서 매일매일 모래를 파내며 생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작품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우가 보충 설명을 해주어서, 책의 주제와 관련된 보다 더 심층적인 토론이 가능했습니다. 주로, 작품의 핵심 내용인 주인공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 토론을 진행하였고, 학우마다 견해가 달랐는데, 서로 토론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모래의 여자'는 아쿠타가와 수상작은 아니지만, 작가가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탓인지 작품 속에 성적인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 모임에서도 일본 문학과 성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학우는 이 주제로 졸업 논문을 쓸까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리는 일본 문학을 다루는 소모임인 만큼, 소모임 활동을 통해 학업과 진로에 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치며

한 학기 동안 꾸준히 책을 읽고 활동에 참여해 주신 부원분들 덕분에 더욱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어떤 책과 이야기를 다루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토론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독서 소모임 '모리'에 한 번 참여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부장님의 한마디

1학기 동안 진행한 세번의 독서활동이 저에게도, 부원들에게도 좋은 양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학기에도 모리 화이팅!

어라, 일문콘에 팀플이 있었나?
~일본문화콘텐츠입문 팀플 후기~

일본지역문화학과 1학년 신입생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강의가 있다. 바로 '일본문화콘텐츠입문' 강의다. 기초적인 일본어 수업을 제외하고 우리 학과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핵심적인 강의라고 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문화콘텐츠의 정의부터 서브컬처, 가와이이 문화 등 일본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문화적 지식을 배울 수 있어 신입생들에게는 필수적인 강의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이전 학기와 달리 팀플을 진행했는데, 모든 것이 낯설었을 신입생들에게 '첫 팀플' 이라는 과제는 결코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플을 훌륭하게 완수한 신입생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어보자.

J-POP조 - J-POP의 역사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Q.주제 선정 이유

우리 조는 평소 J-POP을 즐겨 듣는 학우들이 모였다. 서로 좋아하는 장르는 달랐지만, 'J-POP' 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밴드 음악의 역사를 주제로 선정했다.

Q.팀플을 진행하며

8명이라는 대인원과, 2주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해서 발표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다. 또한 비교적 생소한 1970년대부터 조사해야 하고 그 흐름을 유지하면서 2020년대인 현재까지 내용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조장님이 중간중간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이 이루어져서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었다.



Q.팀플을 통해 얻은 점

우리가 평소에 음악으로서만 소비했던 J-POP을 일본의 사회적 배경과 음악적 특성 등 다양한 예시를 통해 접근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주제는 J-POP의 역사였지만 이것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조원은 적은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팀플을 통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뮤지컬조 - 『데스노트』

Q.주제 선정 이유

우리 조는 한국과 일본의 뮤지컬 『데스노트』에 대해 발표를 준비했다. 조원 모두 뮤지컬에 흥미가 있었고, 한 명은 뮤지컬 데스노트에, 다른 한 명은 원작에 관심이 커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Q.팀플을 진행하며

전반적으로 순조로웠다. 조원이 두 명뿐이라 역할 분배가 수월했고, 무엇보다도 둘 다 좋아하는 작품이어서 발표 준비가 즐거웠다. 물론 힘들었던 점도 존재했다. 서로 소통이 잘 안 돼서 동일한 부분을 준비하거나,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모두 제외한 적이 있었다. 그래도 모두 열정을 가

지고 참여해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무임승차 없이 협력할 수 있었다.



Q.팀플을 통해 얻은 점

지금껏 해왔던 팀플에서는 답답함을 느낀 적이 많았고, 내가 많은 부분을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콘 발표를 준비하며 이상적인 팀플을 경험한 것 같다. 앞으로 팀플을 할 때에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조원과 협동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깨달은 것 같다.

드라마조 - 미디어 속 한일커플

Q.주제 선정 이유

저는 평소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즐겨보는 편이라 일본 드라마를 조사해 발표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아 드라마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제 정하기가 막막했었는데.. 저희팀 사쓰가 지현언니가 던져주신 소재인 한일커플로 결정되었어요. 저희는 미디어의 등장과 한일커플의 증가

추세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미디어가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현실이 미디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Q.팀플을 진행하며

아무래도 저는 지금까지 일본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서 배경지식이 전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여 발표 내용에도 등장하는 한일커플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인 'EYE LOVE YOU'를 시청했습니다. 근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일드만의 매력에 푹 빠져서 바로 정주행했어요. 내용을 말하면 스포가 되니 꼭 봐보세요!! 제 첫 일드였는데 성공했어요~



Q.팀플을 통해 얻은 점

시대별 한일커플을 다룬 드라마를 통해 미디어가 지금처럼 보편화되어있지 않은 시대부터 한일커플이라는 소재가 인기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주도적으로 나서서 발표하며 이렇게 재미있었던 팀플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것같아요…

이번 팀플을 통해 학우들은 소통이 어긋나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차근차근 조율해 나가는 법을 배우고,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본 콘텐츠를 직접 찾아보며 그 매력에 깊이 빠져보기도 했다. 대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마주한 팀플을 멋지게 완수한 1학년 신입생 학우들에게 격려를 보낸다. 이번 경험이 앞으로 남은 전공 공부와 대학 생활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응원한다. 또한, 앞으로 일문콘 팀플을 경험 할 학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홍등 아래 뜨거웠던 5월의 밤, 우리들의 대동제

에디터 배 서현, 양승우 디자인 윤재연

안녕하세요 일본지역문화학과 학우여러분. 찬란한 홍등 아래 뜨거웠던 그날 밤을 기억하시나요? 이번 코너에선 대동제 속 학생회 주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 또한 대동제 주점을 직접 운영했던 혼키로서 그날의 일들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혼키(本気)주점 혼토리(本鳥)

먼저 저희 주점을 소개할게요. 혼키의 주점 '혼토리'는 에도시대의 조카마치를 배경으로, 찬란한 홍등이 펼쳐진 거리를 모티브로 운영되었습니다. 주점 부스를 꾸미는 것부터 메뉴 선정까지 학우 여러분들께서 일본풍을 직접 보고 느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점의 메인메뉴는 나카사키 짬뽕, 야끼토리, 오코노미야키로 구성하였고, 추가적으로 설탕 토마토와 양배추 샐러드를 사이드 메뉴로 제공했습니다. 메뉴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나가사키 짬뽕에 대한 호평이 그득하더라고요~

DAY1

일본지역문화학과 주점은 이틀 동안 운영되었으며, 첫날은 많은 학우분들과 함께 교수님, 조교님께서도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전에 갑작스러운 비 소식과 함께 강풍으로 부스가 날아가 버리는 일까지 발생하여 저희 모두 걱정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주점 운영 전에 비도 금세 멎고, 날씨도 괜찮아져 한시름 놓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코노미야키 담당이라 운동장 쪽을 바라보며 오코노미야키를 구웠고, 옆에선 안병후 학우가 야끼토리를 구웠습니다. 함께 노동하며 야끼토리도 같이 쭈워먹고, 초청 연예인들의 무대도 보며 중간중간 힐링도 했습니다. 특히 한로로 노래를 노동요 삼아 열심히 오코노미야키를 구웠던 게 기억나네요. 주점 운영 첫날이라 정신없고 자질구레한 실수도 많았는데 되려 맛있다며 따뜻한 말을 건네주신 학우분들 덕분에 배로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학과홈페이지 사진 참조)

DAY 2

이튿날은 저도 학과 친구들과 함께 주점을 즐기러 갔어요. 혼토리는 첫날 주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음식을 서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중앙 테이블에서 불 쇼 퍼포먼스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방금 막 옆에서 구워진 야끼토리는 정말 맛있었으며,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시각적인 재미 요소도 더해져 실제로 일본 이자카야에 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퍼포먼스와 함께 준비된 맛있는 음식들과, 어둠이 살짝 내려앉아 한 층 더 분위기 있어진 혼토리 주점, 유카타를 입고 서빙해주는 멋있는 직원들까지.. 이 세 박자가 아름답게 맞물려 '혼키'만의 분위기 있는 주점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대학교에 와 처음 경험해 본 학과 주점이라 그런지 '행복하다'는 말을 100번 해도 모자랄 만큼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다웠던 이틀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첫날 주점 부스를 정리하면서 보았던 불꽃놀이를 이번 대동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꽃이 튀어 오르자 일제히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불꽃에 매료된 장면과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짧은 외마디 감탄사는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날 밤하늘을 반짝거리게 스케치해 준 불꽃들이 혼토리 주점의 마지막을 화룡점정으로 장식해 준 피날레라고 생각합니다! 本当に楽しかった!



(학과홈페이지 사진 참조)





(양승* 학우 제공)

Q. 혼키 주점에 대해 학우들에게 묻다

양승*(26): 주점 음식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풍등이랑 벚꽃 등의 장식이 아름다웠고, 주점의 분위기도 낭만적이었어요. 손님들이 많아 학생회 분들께서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혼키 화이팅!

안병*(26): 사고 없이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ㅎㅎ

정혜*(26): 주점이 예쁘고 음식이 맛있었어욥

윤재*(26):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선배님, 동기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눴던 순간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주점 준비에 힘써주신 학생회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인천대학교 일본지역문화학과 소식지 아이
(Dept. of Japanese Regional Culture)

에디터 곽현수
디자인 이지수

대동제 토토로

: 대동제 토토로 돌아보기

Q1. 대동제 때 토토로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토토로에서는 일본 여름 축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후우링(風鈴) 꾸미기 체험을 중심으로, 직접 소원을 적고 장식하며 일본의 분위기를 가볍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간단한 간식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Q2. 기억에 남는 점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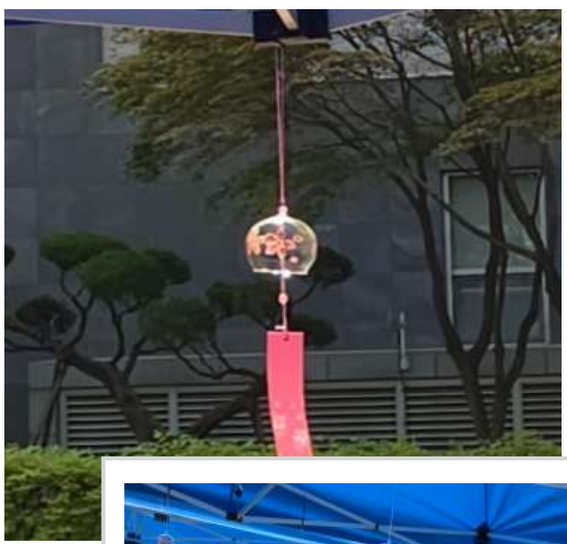


많은 분들이 부스에 방문해주셔서 약 3시간 정도 조기 퇴근을 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17시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준비했던 후우링이 다 떨어져서 예상보다 일찍 종료하게 되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방문해주신 분들, 운영에 도움을 준 집행부 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또 후우링을 너무 많이 매달아서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펼쳐진 점도 기억에 남습니다. 2~30개 정도 되는 후우링이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를 들으며 접신을 할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Q3. 아쉬웠던 점은요?

부스 활동에 있어 부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지 못한 거 같아 아쉽습니다. 사실 토토로 활동 전반에 대한 아쉬운 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2학기 때는 집행부와 일반 부원들의 의견에 더 귀기울여 토토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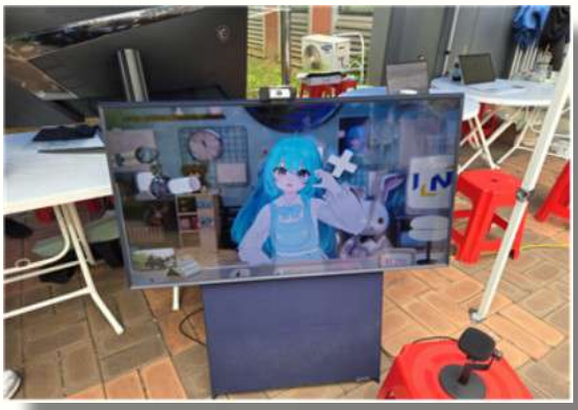
버츄얼과 현실이 만난 순간, 니세카이 대동제

에디터. 이예준
디자인. 최영진

대동제 1, 2일 차인 5월 8, 9일에는, 많은 학우의 이목을 끈 일본지역문화학과(이하 일지문) 소모임의 부스가 열렸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일지문 버츄얼 소모임 '니세카이'였다. 니세카이는 버츄얼 캐릭터 '한니아'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여 일지문의 축제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한니아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부터, 사진을 함께 찍을 수 있었던 '한니아 포토프레임' 이벤트까지, 우리 과의 매력을 한껏 발산한 니세카이의 축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버츄얼 한니아와 직접 대화

니세카이 부스의 오전에는, 한니아와 마주 보고 직접 대화를 해볼 수 있는 이벤트가 열렸다. 화면 속에 한니아와 대화하며 평소에 한니아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물어볼 수 있었다. 또한 방문객과 한니아가 함께 간단한 게임을 진행하는 이벤트가 있었다. 방문객이 주어진 제시어를 듣고, 한니아와 대화를 진행하며 그녀가 제시어를 말하게 만드는 '니아의 입을 열어라!' 게임이 진행되었다. 필자 역시 이 게임에 참여해 보았는데, 이때까지 거리감 있게만 느껴졌던 버츄얼 유튜버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특별한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







니아와 함께 게임 클리어

'니아의 입을 열어라!' 이후에는, 한니아와 방문객이 서로 협동하여 게임을 클리어하는 '니아와 함께 게임 클리어'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한니아와 방문객이 서로 다른 캐릭터를 조작하며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이를 바탕으로 게임을 최대한 빨리 클리어하는 이벤트였다. 게임의 여러 스테이지를 한니아와의 협동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방문객들은 그녀와 함께 환호하고, 절망하며 버츄얼 유튜버가 가진 매력에 깊게 빠질 수 있었다.





한니아 포토프레임

이와 같은 흥미로운 이벤트들이 열리는 한편, 부스의 오른편에는 한니아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한니아 포토프레임'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방문객이 4개의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으면, 그 위에 한니아의 모습이 겹쳐 마치 한니아와 한 공간에 있는 듯한 사진이 연출되는 이벤트였다.

마무리

이 밖에도 방문객이 직접 버츄얼 유튜버가 되어볼 수 있는 '나도 버튜버',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게임 취향을 찾을 수 있는 '퍼스널 게임 진단' 이벤트가 진행되었으며,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은 한니아의 띠부띠부실과 캔뱃지를 받을 수 있었다.

니세카이 이벤트는 일지문에서만 가능한 이색적인 이벤트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각각의 이벤트는 버츄얼 유튜버의 매력을 한껏 뽐낼 수 있는 훌륭한 기획이었다. 또한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평소 서브컬처의 일종으로만 여기며 거리를 두기 십상인 버츄얼 유튜버를 새로운 시각에서,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로써 대동제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니세카이의 부스를 되돌아보았다. 내년 축제, 니세카이가 또 어떤 활동으로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하는 바이며, 앞으로 니세카이가 어떠한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하도록 하자.



대동제
코이(KOI)

에디터
서다설

디자인
채수정

대학 생활의 꽃, 온 캠퍼스가 낭만과 열기로 가득했던 대동제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학우 여러분 모두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셨나요? 이번 대동제에서 우리 학과 소모임 코이(KOI)가 축제 부스를 열었습니다. 이번 부스는 소모임 '유메카라'와 협업을 통해 한층 더 풍성하고 알찬 기획으로 꾸며졌는데요. 지나가는 참가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기발한 게임부터 소중한 컬렉션이 빛났던 전시존까지, 그 뜨겁고 화기애애했던 축제 현장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식지에서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이번 코이 부스의 메인 이벤트는 '캐릭터 맞추기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의 방식은 무척 독특했는데요. 마치 유명 게임인 '마인크래프트'의 인물들처럼 모든 캐릭터를 단순한 사각형 블록 형태로 직관화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무작정 평범한 네모가 아니라 각 캐릭터가 가진 고유의 외형적 특징, 의상, 머리색 등의 시그니처 요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그 특징에 따라 사각형 내 색깔의 면적과 넓이를 다르게 조절해 힌트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캐릭터가 특정 색깔의 망토나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색상이 사각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다르게 해서 퀴즈를 출제하는 것이죠. 힌트 아트를 슬쩍 보기만 해도 "어? 이 색 조합은 설마 그 캐릭터인가?" 하는 유추의 재미가 쏠쏠하며 간단하기까지하여서 어렵지 않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과 학우들뿐만 아니라 축제를 즐기러 온 정말 다양한 학과의 참가자들이 부스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다양한 연령층에 게임을 준비한 덕분에 서브컬처나 애니메이션을 잘 모르는 일반 참가자분들도 부담 없이 끝까지 웃으며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정답을 맞히고 보상으로 받은 우마이봉과 캔디를 양손에 쥐고 기뻐하는 학우들의 모습으로 가득 찼습니다.

눈길을 사로잡은 운영진의 소중한 '보물', 굿즈 진열존!

게임존 바로 옆에는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우뚝 멈추게 만든 또 하나의 전시존으로, 바로 평소 각별히 아끼고 소중하게 컬렉팅해 온 개인 굿즈들을 아낌없이 선보인 '굿즈 진열존'이었습니다! 피규어부터 시작해서 아기자기한 아크릴 스탠드, 쉽게 구하기 힘든 한정판 소품들까지 정성스럽게 정돈되어 축제 부스의 분위기를 한층 더 화사하고 전문성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진열존은 단순히 물건을 얹어놓은 공간이 아니라, 축제장을 오가는 모든 이들의 눈길을 단번에 끄는 훌륭한 시각적 치트키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굳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진열된 정교한 굿즈들을 보며 한 번씩 구경하고 감탄하는 분들이 가득했어요. 멤버들의 순수한 열정과 애정이 가득 묻어나는 공간이었기에, 방문객들에게 더욱 깊은 인상과 특별한 볼거리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이(KOI) 부장중 한 분께 인터뷰를 끝으로, 이번 대동제를 누구보다 뜨겁게 달구었던 코이 부스의 축제 일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Q1. '네모네모 캐릭터 맞추기'라는 참신한 퀴즈 기획은 어떻게 탄생했나요?

A. 마추기아이오라는 사이트에 '색깔만 보고 캐릭터 맞추기' 라는 퀴즈가 있습니다. 그 퀴즈에서 영감을 받아 서브컬쳐 소모임인 코이에 맞게 일본 서브컬쳐 캐릭터들로 재구성하여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난이도를 더 어렵게 제작하자는 의견도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난이도 조절을 했습니다

Q2. 축제 부스를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혹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

A. 가장 크게 굿즈 디자인쪽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대동제에 출품했던 굿즈 중에 엽서가 있었는데요. 그 엽서 디자인이 생각보다 오래걸렸습니다. 원래는 부채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디자인이 미뤄지면서 발주 기간도 함께 엇갈리며 엽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재미있게 즐겨주셔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Q3. 축제 부스의 비주얼을 책임졌던 '굿즈 진열존'을 위해, 애정 가득한 개인 컬렉션을 아낌없이 기여해 준 동아리 멤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우선 분실과 파손의 위험을 무릅쓰시고도 축제 기간동안 굿즈 전시에 기여해주신 모든 부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축제 양일간 지켜본 결과 여러분의 굿즈에 이끌려 부스에 오신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만큼 부원 여러분의 굿즈 덕분에 부스의 열기가 더욱 커졌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굿즈 기증해주신 분들과 부스 운영에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나이 김건의 오사카 여행기

"일본은 차원이 달라"

디자인. 오민준

무더운 월 일의 여름 오사카로 향하는 남자가 있다.. 바로 나 김건이다.



일본의 길거리는 차원이 다르다.

나는 바로 여행의 본 목적으로 향하기로 했다.
오사카 오타쿠 거리, 덴덴타운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해외직구의 난이도가 낮아지고, 홍대 같은 곳에도 피규어샵들이 들어설 만큼 일본에 가서까지 구매할 장점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일본 현지 피규어샵에 가서 피규어들이 쭉 나열된 것을 보고 있으면 이성을 잃고 자신의 최애 캐릭터를 장바구니에 담고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차디찬 장식장의 자신의 애인이 갇혀있는데 이걸 두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나도 내 3일 치 일급에 가까운 30만 원의 돈을 한 시간 만에 쓰며 애인들을 구출해 왔다. 무슨 피규어인지는 비밀이다.



하루카스 300의 뷰, 일본의 야경은 차원이 다르다

오사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아베노 하루카스 300에 가서 야경을 보았다
피규어에 정신이 팔린 사이 태양은 퇴근해 버렸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건물의 높이는 300m이다.
공사비로만 무려 7,600억이 들어갔다.

전망대는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8층~60층) 중간에 카페도 있어
음료를 마시며 야경을 볼 수도 있었다.
콜라를 5천 원 주고 사는 일이
내 인생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야경까지 보았지만, 여행의 첫날을 마무리 짓기에는 아쉬운 시간이라 오사카성으로 일정을 이어갔다. 체감온도가 40도가 넘는 날에 성터를 대낮에 걸으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도 남을 거 같다는 생각으로 라이트업을 보자는 계획을 세웠고 성공했다.
옆에 있는 산책로에서도 성은 보였고, 바로 앞으로 가니 웅장했다.
성은 순백의 하얀색을 자랑하고 있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야외에 있는 성이 어떻게 이런 하얀색을 유지하고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다.



일본의 성은 차원이 다르다.

2일차에는 유니버설에 갔다.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지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 이건 쿠파와 마리오가 만든 걸 깨달아서 더 고민할 필요는 없었다.

어트랙션은 물론 건물 하나하나 모두 공들여 놀이공원이 아니라 진짜 마리오한테 초대받은 거 같았다.
일본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차원이 다르다.



해리포터 존은 정말 해리포터였다. 단순 흉내를 낸 정도가 아니었다.
해리포터는 사실 이곳에서 찍은 다큐멘터리였다.
소설 원작 영화라더니, 다 거짓말이었다.
역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정신연령을 낮춰 지내다 보니
어느덧 다시 어른의 세계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어른제국에서 짱구 아빠가 왜 그 세계를 그리워하는지 이해가 됐다.
나의 영혼은 아직 닌텐도 월드에 남아 있다. 사실 이 세계가 꾸며진 거고
닌텐도 월드가 진짜 세계 아닐까? 세상의 비밀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란다.





일본의 페라리는 차원이 다르다

숙소에 복귀하니 밤 10시길래 산책을 한 번 더했는데
일본은 자동차 판매장도 남다르다. 페라리 매장에 F1차가 전시되어 있다
일본 사람들은 이걸 매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난 너무 부러웠다.



일본의 기찻길은 차원이 다르다

셋째 날은 교토로 향했다. 첫 일정은 아라시야마 치쿠린의 대나무 숲이었다. 아침 일곱 시에 도착하였기에 사람도 별로 없었고, 나무들이 그림자를 만들어 줘 뜨겁지도 않아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 속 고즈넉함을 느끼기에 좋은 환경이었다.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렇기에 사람들이 몰리기 전인 이른 아침에 오는 것이 좋을 거 같다.

중간에 지나가는 열차들과 울어대는 매미들 사이에서 머리 아픈 생각은 접어두고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기에 좋은 시간이었다.



교토타워 인근에 있는 카이다시멘 키타다에 방문하였다
이 라멘집은 삼성 이재용 회장이 방문하였다고 해서 나도 와봤다.
이 라멘은 돼지나 닭으로 낸 육수가 아닌 해산물로 내려서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났다. 더 맛이 좋았던 것은 내가 들어오고 나서 대기가 길게 늘어서서 라멘을 먹으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라멘이 더 풍미가 있었다.



라멘을 먹고 난 기온으로 향했다.
길 중간에 있던 포켓몬 센터 교토. 계산하는 줄이 길어
뭔갈 사지는 않았지만, 기모노 피카츄를 보러 오는 것만으로 가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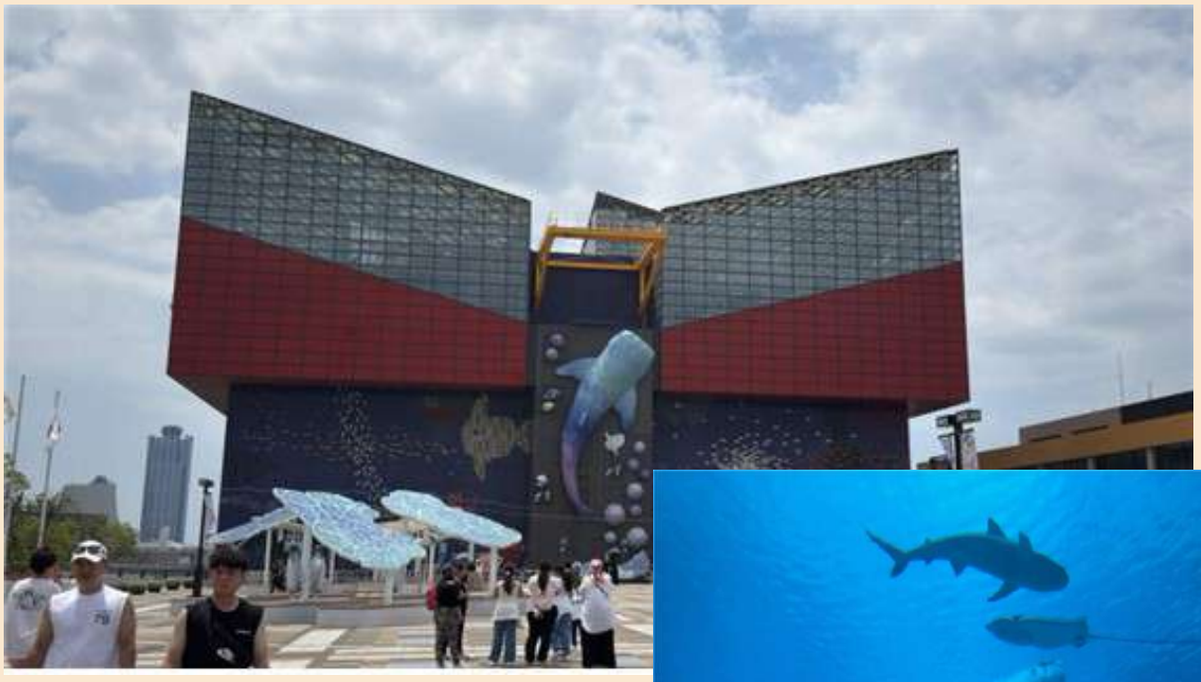
본토의 피카츄는 차원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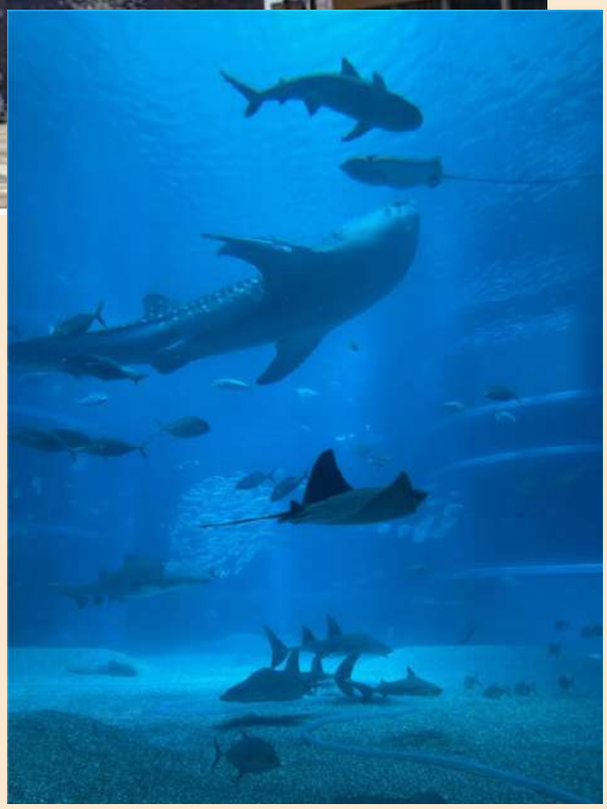
교토 기온에도 멋진 차들이 많다. 저 뒤가 유명한 기모강이지만
차를 찍느라 기모강 찍을 생각을 안 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기에 교토에서 벗어나 숙소 근처인 우메다로 돌아갔다.
숙소 바로 뒤 오렌지스트리트에서
일본 양카들과
JDM (Japanese domestic model) or (Japanese drift machine)
차들이 대거 출몰했다. 부아앙 하는 배기음을 내뿜으며 카드도 안 들어갈
높이까지 내린 차체, 형형색색의 차 색깔은 차쟁이를 흥분시키기에 더할 나위
없었다. 이날 4만 보를 걸어서 빨리 쉬려 했는데 힘든 게 갑자기 없어졌다.
구경하다가 경찰이 떠서 도망가느라 오래 보지는 못했다.

4일차





마지막 날은 비행기도 타야 하기에 무리하지 않는 일정이었다. 고래상어와 개복치를 보유한 세계 최대급 아쿠아리움인 가이유칸에 갔다 수족관의 구조는 고래상어가 배치된 거대한 원통형 수조가 가운데에 있고 이를 중심으로 내려가며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볼 수 있는 구조였다.

웅장하다. 고래상어가 생각보다 가까이 보이며 크기가 매우 크다.



그리고 바로 옆 항구에서 운이 좋게도 자위대가 출항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군함 장식인 줄 알았는데 진짜 움직이네, 이거

이렇게 해서 3박4일의 오사카 여행은 막을 내렸다.
여행이 끝나고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의 몽환 분위기는 언제나 적응되지 않는다.
나는 자본주의의 노예여서 돈이 걸려있으면 항상 멈칫하지만
여행만큼은 돈 걱정이 들지도 않고 돈이 아깝지도 않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 하늘로 떠오르는 순간, 창밖으로 멀어지는 오사카의 불빛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여행은 사실 대단한 게 아니다. 라멘 한 그릇, 토리이,
장식장 속 애인들...
하나하나 보면 보잘것없는 것들이지만 이것들이 모여 추억을 만들었다.

몇만 보를 걷고, 콜라 한 잔에 5천 원을 태우고, 경찰 피해 도망도 쳐본 거 생각하면
고급스럽고 우아한 여행은 아니었지만 원래 낭만은
이런 너저분한 곳에서 튀어나오는 거다.

다음 여행지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루의 연속에서도
나는 떠날 것이라는 건 확실하다.

또 다른 추억을 쌓고, 또 다른 이상한 짓을 하기 위해
난 떠날 것이다. 물론 운명의 그녀를 만날지도 모른다.



일본, 야호--!



일본지역문화학과 학생들의 교환유학 후기

에디터. 김수진
디자인. 오민준

일본 교환유학은 많은 학생들이 한 번쯤 꿈꾸는 대학생활의 경험이다.
하지만 막상 준비를 시작하면 학교생활, 언어, 문화 차이 등 궁금한 점도 많다.
이번 호에서는 일본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생활한 우리 학과 학생을 만나
유학을 선택한 이유와 현지에서의 생활, 그리고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후쿠오카 대학, 공*민 학생





자기소개와 교환 대학을 소개해주세요.
*- 일본지역문화학과 24학번 공*민입니다.*
저는 후쿠오카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갔습니다.

해당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저는 처음부터 도쿄나 수도권 같은 곳보단 도시지만 잔잔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마침 전년도에 후쿠오카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오신 분이 근처에 있었고 그 분에게 여러 조언이나 추천을 받아서 후쿠오카 대학으로 가야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학 전 가장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 저는 살면서 한번도 혼자 살아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요리는 커녕 빨래도 해본 적이 없어서 세탁기를 사용하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정되고 난 후 혼자 사는 삶을 가장 기대했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고 하고싶은 일은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수업은 어땠나요?
- 처음 강의를 들었을때는 전부 일본어로만 이루어져있어서 용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수업을 이해한 다음부터는 강의 자체는 한국보다 쉽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던 것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매번 복습도 해주시고 강의 시간도 짧아서 집중하기 더 쉬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를 해서 먹었었는데 다른 나라의 친구들과 한국요리를 해서 먹는 경험이 처음이었기에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느꼈나요?
-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노는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였습니다. 한국처럼 개강총회나 오티같이 다같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노는 분위기가 아니고 과방이나 휴게실 같이 학교 안에 쉴 공간도 없어서 강의가 끝나면 바로 집에 가는 분위기였습니다.또 미성년자인 친구들이 많아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놀기보단 기숙사에서 요리해서 저녁을 같이 먹는 일이 많았습니다.

유학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 처음 오자마자 몸살 감기에 걸렸는데 이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프지만 요리도 해야되고 청소도 해야된다는 상황이 많이 서러웠던 것 같습니다. 처음 혼자 살게된거라 부모님의 부재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나요?
- 별다른 행동을 취하진 않았고 마음가짐을 새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프면 나를 먹여살려 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고 마냥 혼자라서 즐겁다는 마음보단 제대로 살아야겠다 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부모님과 자주 통화를 해서 일상을 공유하면서 항상 같이 있다는 느낌을 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 일단 선배들이 기부하는 용품을 전부 받으셨으면 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씁니다. 또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택할 수 있는 강의의 폭이 넓어집니다. 와서 일본어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평소 관심이 있었으나 한국에서 전공 수업을 듣느라 못 배웠던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이라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일지라도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한국에 있을 때는 혼자서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오니까 잘 해먹고 잘 살게 되더라구요. 평소에는 알 수 없었던 내 모습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홋카이도 대학, 김*진 학생





자기소개와 교환 대학을 소개해주세요.
*- 일본지역문화학과 24학번 김*진입니다.*
저는 홋카이도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갔습니다.

해당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인천대학교에서 교환을 갈 수 있는 학교 중에서 높은 레벨에 속해 있던 학교였던 것이 큰 매력이었습니다. 높은 레벨인 만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얽힐 수 있는 교환학생, 유학생이 많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아이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홋카이도 대학이 아니라면 만질 수 없는 분야니까요.

유학 전 가장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 자취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자취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나만의 집이 생긴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정작 기숙사 도착하자마자 너무 작은 방에 실망하면서도 지금은 나름 공간을 활용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실제 수업은 어땠나요?
- 지금까지 전공 수업이나 교류 활동을 하면서 일본어에 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던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아직 공부가 부족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홋카이도 대학의 경우, 인천대에서 오는 교환학생은 SA 신분이기 때문에 전공 수업을 무조건 7과목 이상 수강을 해야 하는데요. 홋카이도 대학교는 전공 수업이 2학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준 높은 수업이 많아서 언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전공 수업이 2학년 전용이라는 것도 없이 2~4학년 자유롭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렵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학교 축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홋카이도 대학 연극 동아리 [극단 시로쨩]과 뮤지컬 동아리 [하르니레]에 둘 다 소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극단 시로쨩에서 학교 축제 공연의 스태프 일을 마치고 곧바로 하르니레 측에서 스테이지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정을 마치고 학교 축제 부스 등을 돌았는데, 역시 홋카이도 대학교라서 그런지 관광객도 많아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느꼈나요?
- 학점 문화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래도 평균적으로 1학기 당 18학점을 듣는 이미지가 많지만, 일본은 3학년부터 4학년은 취직 활동에 전념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점을 1학년과 2학년 때 이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 1학년 친구들은 1학기에 무려 32학점을 이수하더군요. 반면에 저는 16학점이었습니다. 또한 점심 시간이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수업이 없이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학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 삿포로의 기후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기후 특성상 4월까지 눈이 남아있었으며, 5월이 되어서야 꽃이 폈습니다. 남들은 다 4월에 벚꽃 사진 올리면서 자랑하는데 저만 흰눈에 둘러쌓여서 까마귀에게 공격 당하는 유학 생활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면서 쓸쓸했던 것 같아요. 시원한 기후의 영향인지 7월인 현재에도 평균 26도이며, 가끔 건물 안에 에어컨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동아리 활동을 하는 서클 회관에는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면서 활동을 했던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날씨 때문에 제가 감기를 두 번이나 걸리고 코로나도 한 번이나 걸렸네요.

어떻게 극복했나요?
- 딱히 극복을 하진 못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땐 병원을 갔습니다.
약값 포함 보험 3할로 3만원이 나왔습니다. 여름 더위는 돈키호테에서 휴대용 선풍기를 사서 버티고 있네요. 이외에도 더위 극복에 좋은 아이템들을 엄청 샀습니다.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 다른 대학이라면 모르겠지만, 홋카이도 대학교로 교환 유학을 고민하는 학우분들이라면 일본어를 제대로 공부하신 다음 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천대에서 홋카이도 대학으로 오는 교환유학 제도상 전공 과목 7개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으며, 앞서 언급드린대로 전공 수업은 제법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환유학이야말로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한 장소이지만, 정말 순수 N2 수준의 일본어로 오신다면 수업은 물론이고 생활을 적응하는 데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대학교에서 온 친구들 중에서 일본어 실력이 문제가 되어서 일본인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교환유학인 만큼 일본인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배워나가는 기회이기 때문에, 되도록 홋카이도 대학교라면 제대로 공부를 하신 다음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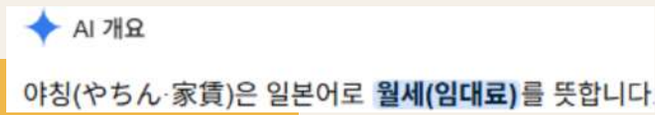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나 외국인인데?" 실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합시다. 무적의 실드입니다. 홋카이도 대학 교환 유학에 관심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ins: @n1s_ujn

야마나시현립대학, 하*안 학생





자기소개와 교환 대학을 소개해주세요.
- 야마나시현립대학입니다.
야마나시 고후시에 위치해 있어요.



해당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도쿄 근교인 점과 학교 측에서 야칭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유학 전 가장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 딱히 기대는 안 했지만, 그냥 일본에서 살아보는 거...? 혼자 자취해 보는거..
일본어 실력이 향상되는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실제 수업은 어땠나요?
- 수업은..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교수님들 말이 좀 빠르셔서 못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에피소드보다는 일상에서 느낀것들이 돌아가서도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봤던 풍경들이나.. 매일매일 봤던 후지산이라든가..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느꼈나요?
- 큰 차이점은 딱히 없는 거 같은데 신기한 건 일본 대학교는 점심시간이 있다는 점...

유학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나요?
- 극복... 은 아니지만 그냥 어른이니까 해야지 ㅠㅠ 하고 했습니다...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 야마나시는 시골이라 자전거가 필수라서... 자전거 연습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와서 많은 걸 체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개최하는 행사 같은거나 지역에서 하는 마츠리 같은거!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생각보다 해외에서 혼자 살아보는 게 힘들지만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여유롭게 일본생활을 즐길 수 있는 때는 대학생 때 밖에 없으니까요.
교환학생 추천합니다아.



일본지역문화학과
'소모임 아이'

에디터 : 서다설
디자인 : 오지민

한일 가정의 현황과 관련 프로그램을 파악

: '인천 한일 다문화 연구단'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이번 학과 소식지에서는 조금 특별하고 알찬 활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연구단' 이야기인데요. 말 그대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끼리 하나의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탐구하는 주체적인 모임이랍니다. 당시 제가 했던 연구단에서는 인천 지역의 특성을 살려 '다문화(한일 가정)'를 중심으로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얻었는지 생생한 Q&A로 가볍고 명쾌하게 들려드릴게요!

Interview

Q1. 학생연구단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우리 손으로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을 합니다. 연구 주제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찾고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갑니다.저희 '인천 한일 다문화 연구단'의 경우에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한일 가정의 현황과 관련 프로그램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어요.

이를 위해 문헌스터디 및 다문화센터 담당자님과 인터뷰도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너무 본격적이라 학생들이 하기에 막연하고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때마다 담당 교수님께서 도와주셔서 괜찮습니다. 방향성이 흔들리거나 앞이 막막해 보일 때마다 교수님께서 중간중간 정교한 피드백을 주시고 길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길을 잃을 염려가 없어요. 게다가 활동 첫날 OT에서 연구단의 방향성과 수행 방법에 대해 워낙 상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처음에 느꼈던 막연한 두려움은 금방 사라지고 즐겁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Q2. 이 활동을 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가요? (혜택 및 장점)

우선 지원비가 나옵니다. 무려 팀장과 팀원 모두에게 각각 지급되는데, 대학 생활을 하면서 받기에 나름 쏠쏠한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취업 준비와 실무 능력 향상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만약 다문화나 한일 관계, 혹은 그쪽 계열로의 취업을 생각하고 계신 학우분들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스펙은 없을 거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관련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점이 가득해요! 활동을 하다 보면 공공기관이나 센터 담당자분들께 공식적인 비즈니스 이메일을 작성하는 법, 체계적인 학술 보고서 및 기획서를 작성하는 법 등 배울 수 있어서 취업시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Q3.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 중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시간 관리'와 '일정 조율'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약 한 학기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모든 프로세스를 밟아야 하다 보니 기간이 무척 짧게 느껴져요. 특히 학기 말로 갈수록 조사 환경의 시급성이나 행정적 절차(예컨대 기관 담당자분들의 부재 기간 등)와 맞물려 타이트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중간·기말 시험 기간'과 겹쳐서 난감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팀원들과 일정을 미리 공유하고 조율하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 총 3명이서 소수정예로 활동했기 때문에 한 사람당 맡은 역할과 할 일이 꽤 많았어요. 하지만 만약 인원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구성해서 참여한다면, 분담률이 줄어들어 한결 수월하고 재미있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4. 어떤 사람에게 이 학생연구단을 추천하나요?

만약 다음 학기에 '한일 다문화 연구단'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런 학우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1. 다문화 가정 현황이나 한일 사회문화적 교류에 깊은 관심이 있으신 분
(직접 다문화센터에 공식 이메일도 보내보고, 활동 방향에 따라 실제 현장 담당자 인터뷰까지 진행해 볼 수 있어요! 평소 이 분야에 진로 생각이 있으셨다면, 머릿속으로만 그리던 꿈과 진로를 훨씬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2. 나만의 차별화된 포트폴리오 및 확실한 스펙을 알차게 채우고 싶으신 분
('학생연구단'이라는 명칭 자체만으로도 희소성이 있는데, 저희 기수 때는 연계된 학술대회 출전 기회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직무나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시든 남들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강력한 스토리라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3. 주입식 공부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기획하고 성취하는 짜릿함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가 직접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진짜 공부의 재미와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4. 철두철미한 시간 관리 능력과 원활한 소통(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추신 분
(이 부분은 진짜 백 번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교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이끌어주시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 학생들이 주도하는 모임이다 보니, 한 명이라도 책임감을 놓거나 소통이 안 되면 팀 전체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끝까지 서로 맞춰가며 책임감 있게 완주할 수 있는 분이라면 대환영입니다!)

5. 보고서 및 학술 문서의 제대로 된 양식과 작성법을 확실히 익히고 싶으신 분
(기본적인 보고서의 체계적인 구색부터 각주, 참고문헌작성법 같은 공적·학술적 양식을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졸업 논문이나 향후 보고서를 작성할 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이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다 싶으시다면 도전해 보세요! 대학 생활 중 가장 보람차고 성장 했다고 느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에디터. 이지수
디자인. 오민준

Q. 일지사 악명이 높다던데 사실인가요?



-일본지역사회의이해 수강 후기-

"어 너 벌써 3학년이야? 그럼, 일지사 들어야겠네"

일지문 학생이라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3학년 1학기가 되면 일지사라고 불리는 일본지역사회의 이해라는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데요. 이 과목은 수강하기 전부터 소문이 먼저 들려옵니다. 저 역시 수강 전 선배들을 통해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제가 많다." "미루면 큰일 난다." "발표도 있다."

또한 소논문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2년 동안 학교에 다니며 소논문을 쓸 기회가 없었기도 하였고, 과제는 대부분 리포트였기에 '내가 소논문을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전에 조금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주 많이요...

수업개요 및 목적
이 수업은 현대일본을 국가 단위로 총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구성하고 있는 다층적인 지역 단위별로 일본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업목표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 등 일본사회의 구조적 변동으로 인해 지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과 문제를 통찰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수업진행방법
주차별 주요 키워드 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일본지역사회의 주요 키워드 조사와 소논문 작성을 통해 지역학 관련 졸업논문 주제를 탐색한다.

출처 : 일본지역사회의이해 강의계획서

먼저 일지사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 일지사에서는 일본 지역사회의 현상과 문제를 다양한 논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매주 논문을 읽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중간에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감점, 답하면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논문은 미리미리 읽어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과제는 총 3번, 시험은 기말시험 한 번이며, 발표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표하면 가산점은 물론이고, 작성 중인 소논문에 대한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받는다고 해서 감점되는 일은 없으니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가산점도 받고 소논문을 더 발전시킬 기회라고 생각되어 저는 개인적으로 발표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기말시험은 단순히 논문 내용을 암기하는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외우려 하기보단 평소에 수업 열심히 듣고 일본 지역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수업만 열심히 들으셔도 기말시험은 큰 어려움 없이 보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위에서는 일지사의 전반적인 수업 방식에 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하지만 역시 많은 학우 여러분들이 '일지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소논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일지사의 시작과 끝은 소논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학기 동안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와 논문을 찾아 읽으며 하나의 소논문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벌써 막막한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논문을 갑자기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기 동안 단계별로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과제도 모두 소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제1과제 : 일본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키워드 5개 이상 선정 후 관련 이론, 시사점 등 조사
제2과제 : 과제1의 키워드 5개 중 1개를 선택해 관련 선행 연구 3편 이상 읽고 연구 한계 등 정리
제3과제 : 선택한 키워드로 소논문 작성하기

즉, 세 개의 과제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논문을 완성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찾다가도 '이 주제가 정말 맞는 걸까'하는 고민이 계속 들었고, 주제만 여러 번 바꾸었습니다. 이제 와서 밝히는 이야기이지만, 발표 전날에 소논문 주제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주제를 정하고 소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학부생에게 그렇게 거창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과정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한 학기 동안 자료를 찾고 고민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결과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고 과정을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소한 팁

주제는 자신의 관심 분야로
→ 한 학기 동안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하는 만큼 본인이 질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졸업논문으로 발전시킬 생각이 있다면 더더욱 관심 분야로 주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미리미리 하자....
→ 팁이라기보단 당연한 말이지만, 미리미리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일본 자료를 조사해야 하는 만큼 시간도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원하는 자료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수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미리미리 하세요!

발표해라
→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발표 정말 추천합니다. 교수님의 피드백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기회입니다. 감점 없고 가산점만 있습니다.

Q. 일지사 악명이 높다던데 사실인가요?
아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할 것도 많고 시간도 많이 들고 생각도 많이 해야 합니다.
다만 그만큼 얻어가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강 전에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너구리에게 쫓기다’...
-교내 너구리 출몰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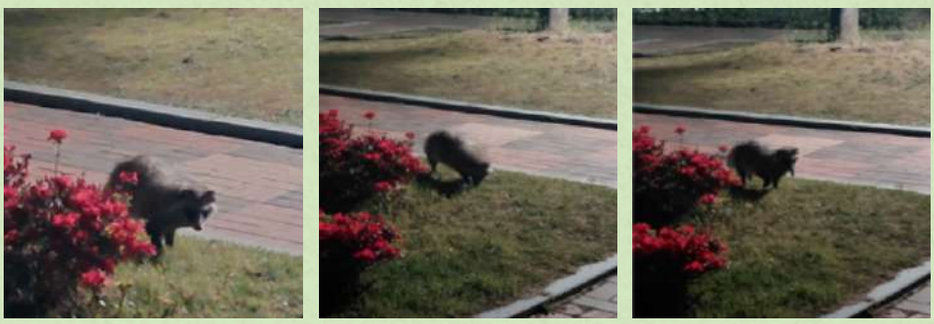
들어가며

우리 인천대학교에서는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까치, 고양이, 갈매기, 드물게 토끼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이한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너구리입니다.

너구리 출몰에 대해

어떻게 인천 송도에 너구리가 출몰하는 걸까요? 지자체는 “송도 공원에는 자연 생태계가 조성돼 있고 천적도 없어 너구리가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인천대학교 주변에는 솔찬공원, 캠핑장, 골프장 등 물과 먹이를 구하기 쉬운 녹지공간이 잘 형성되어 있어 학교에서도 너구리를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도 직접 너구리를 마주친 적이 있는데요. 4월 27일 새벽 1시 55분경, 인문대 근처 화단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너구리를 발견했습니다.



화단에서 풀을 뜯고 있는 너구리. (2026.04.27. 필자촬영)

너구리 출몰에 대해서는 학우들을 통해 자주 들었는데, 실제로 보는 것은 처음이라 3분 정도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너구리,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접근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서서 너구리를 보고 있으니, 너구리는 풀을 뜯으며 점점 다가왔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계속 보고 있자 너구리는 흥미를 잃었는지, 얼마 안 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너구리에게 쫓긴 학우가 있습니다. 학우와 인터뷰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16호관 쪽으로 사라지는 너구리. (2026.04.27. 필자촬영)

실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

Q. 언제, 어디에서 너구리를 마주치셨나요?

A. "*1학기 중간고사 기간인 4월 말, 새벽 1시쯤에 마주쳤습니다.*"

Q. 처음 너구리를 발견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A. "너구리가 학교에 출몰한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본 적도 없고, 학우들이 장난 삼아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반신반의했습니다."

"새벽 1시쯤, 시험공부를 하다가 잠시 바람을 쐴 겸 인문대 옆 농구장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차도 쪽을 지나던 때, 무언가가 저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덩치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들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들개와는 생김새가 달랐습니다. 멧돼지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최근에 곰 출몰 뉴스를 자주 접했던 터라 잠시 곰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대상이 충분히 가까워지자, 비로소 너구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Q. 너구리를 마주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A. "처음에는 다가오는 대상이 무엇인지 몰랐기에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구리라는 것을 알게 되자, '얘가 어떻게 행동할까, 뭘 할까' 등의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Q. 너구리에게 쫓기게 된 경위가 궁금합니다.

A.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약간의 궁금증도 있었기에, 조금씩 뒷걸음질을 치며 너구리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걸음씩 뒷걸음을 칠 때, 너구리는 두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너구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저는 등을 돌리고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너구리가 속도를 내며 추격해오더라고요. 당황한 저는 농구장 옆 차도에서 인문대까지 도망쳤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와 문을 닫자, 문 근처까지 따라온 너구리는 이내 사라졌습니다."

Q. 당시의 심정은 어땠나요?

A. "많이 당황스러웠고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인문대까지 뛰어오기도 했고 긴장감을 느끼기도 했기에, 건물 안으로 도망쳐 상황이 끝난 후에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실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

Q. 현재 너구리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A. "이모티콘이나 롯데월드 마스코트 '로티', '로리'처럼, 너구리 캐릭터를 접할 때에는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구리를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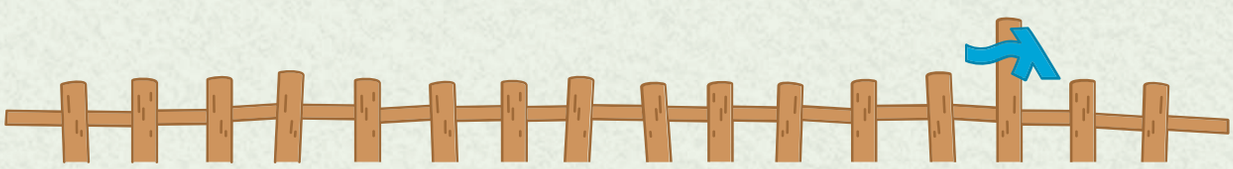
Q. 너구리 사건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너구리를 마주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너구리의 위험성

너구리는 광견병을 전파하는 주요 야생동물 중 하나입니다. 너구리는 감염 시에도 자체 면역력으로 생존하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에게 광견병을 옮길 위험이 있습니다. 너구리에게 물릴 경우 광견병뿐만 아니라, 파상풍, 기타 세균 감염의 위험도 있습니다.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는 야생너구리를 만났을 때 사진을 찍는 등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은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너구리는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학우분들께서는 새벽에 인천대를 산책하실 때 너구리 출몰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너구리 조우 시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너의 학교생활은?



일본지역문화학과의 과탑과 과바텀의 학교 생활에 대해 알아보자!

에디터: 김0은
디자인: 김0은

들어가며

학과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과탑은 어떻게 공부할까?', '과바텀은 정말 공부를 안 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시험을 치르지만, 성적과 대학생활의 모습은 저마다 다르기 마련인데요. 학과에서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과탑과 과바텀을 만나 공부 습관부터 시험 기간 루틴, 과제, 동기부여, 그리고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까지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답변도 있었지만 의외의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대학생활을 엿보며 자신과의 공통점을 찾아보시죠!!

과탑 "김0주 학우님"

공부력 ★★★★★ 집중력 ★★★★★
계획 ★★★★★ SNS ★★★☆☆

과바텀 "익명의 학우님"

공부력 ★★☆☆☆ 벼락치기 ★★★★★
게임 ★★★★★ 출석 ★★☆☆☆

과탑과 과바텀의 간단한 Q&A

Q. 시험 공부 기간은?

전공: 2주전, 교양: 벼락치기 (1~3일 전)

빠르면 하루 전 늦으면 당일날 아침

Q. 필기 방식은?

수업 자료 ppt, 코넬식 노트 필기법

1학년 초반 열심히 필기했지만,
그 후로는 노트를 두고 다녀 ..

Q.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은?

강의 시간에 집중 -> 완벽히 이해
모르는 것: 질문

깡암기 : 전날 암기하면 뭐든 가능

Q. 시험 전날 밤 10시의 당신은?

최종 복습,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가지기

게임. 하지만, 양심상 옆에 책은 펴둠.

Q. 휴대폰 및 SNS 사용 시간

하루 4 ~ 5시간

학교 가는날에는 6~8시간

Q. 공부 계획을 잘 지키는가?

자주 틀어지지만, 최종 목표를 향해 조정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

과탑 "김0주 학우님"

Q.시험 기간 하루 일과를 알려주세요!

A. 시험 기간에도 평소와 똑같이 수업을 듣고 집에 가지만, 시험 공부를 위한 계획을 추가로 세웁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범위와 시험 날짜에 맞춰 공부 계획을 세우고, 날짜별로 공부할 분량을 정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그날 정한 목표량만큼만 공부하고, 공부가 끝나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편입니다.

Q. 공부하다가 유튜브 켰는데 정신 차려보니 몇 시간이 지나 있던 적이 있으신가요??

A. 엄청 많습니다ㅠㅠ 잠깐 머리 좀 식혀야겠다는 생각으로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정신 차리니 2시간씩 지난 적도 있습니다.

Q.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A.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자체가 순수하게 재밌고 흥미로워서 공부를 하는 것이 즐거울 때가 많습니다. 모든 강의가 다 재밌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의 강의를 선택해서 듣기 때문에 공부가 더 재밌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잘 맞지 않는 강의를 듣거나 시험 공부를 할 때에는 자주 지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면 다시 동기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교환학생이나 해외 인턴십처럼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데, 주로 성적이 평가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도 좋은 성적을 받고자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Q.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극복하나요?

A. 주로 피로가 쌓이면 공부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잠깐 눈을 감고 쉬거나 아예 일찍 자는 편입니다. 계획한 만큼 공부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공부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스스로 집중이 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미련 없이 그날의 공부를 마치고 다음 날에 다시 공부합니다.

과바텀 "익명의 학우님"

Q. 시험 기간 하루 일과를 알려주세요!

A.
등교 -> 수업 -> 밥 -> 수업 -> 집 -> 게임 -> 잠 순입니다. 공부는 사치입니다.

Q. 공부를 하긴 하시죠?,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을 몇 번째 하고 있나요?

A. 매 학기마다 과탑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만 있습니다. 제가 과탑이였다면 이 인터뷰가 없었을거에요.

Q. 성적 빼고 학과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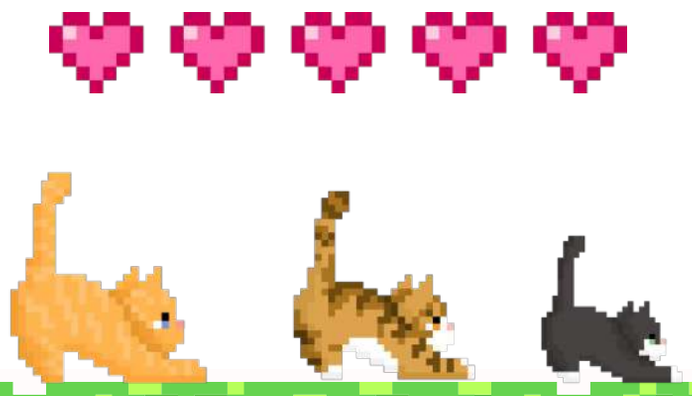
A. 음.... 제가 이것저것 다 해보는것을 좋아해서 뭐 하나 자신있다고는 말할 수 없겠네요. 대신에 이것저것 잡지식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인생역전 계획 있으신가요?

A. 네. 가끔 심심풀이로 로또나 복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률이 낮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Q. 추천하는 인생 강의는?

A. 일본 서브컬쳐의 이해 추천드립니다. (서브컬쳐 관심있는 분들만) 서브컬쳐 좋아하시면 공부하기는 좀 어려워도 수업시간에 지루하시진 않을겁니다.



과탑 "김0주 학우님"

Q. 발표를 잘하는 꿀팁 공개 가능한가요? ㅎ

A. 저도 발표할 때마다 너무 떨려서 발표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발표 대본을 작성한 후 도입부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떨리고 긴장하게 되는데, 발표 대본의 도입부를 암기해두면 긴장감을 조금 덜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이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대본을 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공부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과 소모임뿐만 아니라 중앙동아리도 많이 참여해 보고, 학교 축제나 학과 축제,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캠퍼스 앞 잔디밭에 돗자리 깔고 밥도 먹으면서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학교생활을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Q. 학점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끈기와 목표!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마음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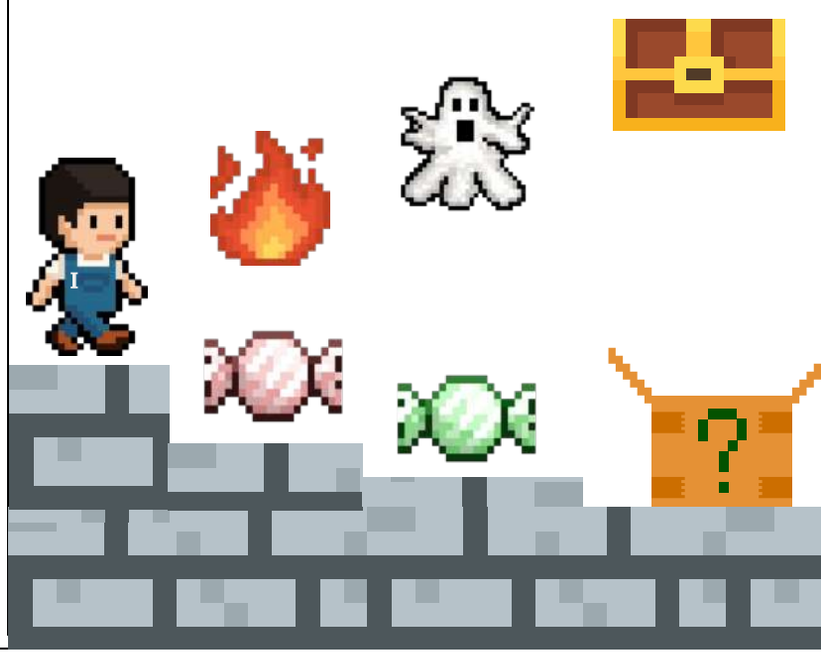
과바텀 "익명의 학우님"

Q. 추천하는 책이나 애니 게임 등이 있으신가요?

죠죠의 기묘한 모험 추천드립니다. 작화가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능력자 배틀물 좋아하시면 꼭 한번 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Q. 후배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조언해 주세요!

A. 위의 답변들처럼만 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절대절대 수업을 쉬지 마세요. 출석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반영되더라구요.



나가며

여러분, 인터뷰를 읽으며 과탑과 과바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이번 인터뷰를 통해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과탑도 사람이었고, 과바텀도 생각보다(?) 열심히 살고 있었다는 것! 과탑이라고 해서 늘 계획대로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었고, 과바텀이라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두 사람 모두 저마다의 고민과 목표를 가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과탑과 과바텀 모두 특별한 사람이라기보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학우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하면서 각자의 속도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어쩌면 중요한 것은 성적 그 자체보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학생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우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만들어가길 응원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슬기로운 과사 생활

학과 사무실 근로 생활을 알아보자!

에디터 이지수
디자인 이지수

학과 사무실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반겨주는 익숙한 얼굴이 있습니다. 서류 정리부터 강의실 관리, 각종 학과 업무 지원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과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과사 근로 학생들입니다. 익숙함에 그냥 지나치던 학과 사무실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번 인터뷰에서는 과사에서 근로 중인 김0은 학우와 박0서 학우와의 이야기를 통해 과사에서의 에피소드, 그리고 직접 경험하며 느낀 과사 근로의 매력까지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Q. 학과 사무실에서 근로하면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김0은 학우 : 서류 정리, 서류 및 우편물 전달, 강의실 관리(청소, 문단속 등), 과사 청소 및 관리를 합니다!

박0서 학우 : 우선 과사무실과 강의실(401, 323호)의 관리를 합니다. 아침에 강의실 문 열거나 청소 등의 간단한 일입니다. 일본지역문화학과 홈페이지 관리나 공지사항 작성 등의 전반적인 학과 관리 보조 일을 합니다. 433에 있는 독서 목록이나 명단 정리 등의, 어렵진 않지만 엑셀이나 서류 작성 등의 일도 가끔 있는 편입니다! 교수님이나 조교님이 부탁하시는 다양한 일을 하게 돼요.

Q. 근로 시간은 보통 어떻게 정해지나요? 수업 시간표에 맞춰 조정이 가능한가요?

김0은 학우 : 수업 시간 제외하고 나머지 비는 시간에서 근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5일 중 1일 정도 쉬는 날로 하고 있어요 !

박0서 학우 : 근로 시간은 월 최대 80시간입니다. 수업은 들어야하기 때문에 수업시간 빼고 근로시간이 들어가고,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업시간과 겹쳐서 근로시간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 온라인 수업없이 너무 빽빽하게 시간표를 잡으면 80시간을 다 채울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Q. 근로 중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김0은 학우 : 조교님이랑 배달시켜 먹거나, 라면 끓여 먹습니다!! 종종 외식도 해요~~

박0서 학우 : 과사 냉장고에 채워져있는 집에서 가져온 냉동볶음밥을 먹는다던가.. 라면을 끓여먹거나... 편의점에서 사오거나 밖에 나가서 먹습니다. (가끔 조교쌤이 사주시기도 합니다 ㅎㅎ)

Q. 근로 중 시험 기간이나 과제 기간에 부담은 없으셨나요?

김0은 학우 :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조교님이 뒤에 있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가끔 도서관 타임이 필요해요 ㅎ

박0서 학우 : 오히려 근로를 하면 과사에 계속 있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근로하기 전까진 동기들이랑 같이 있을 땐 공부 안하고 놀고 돌아다녔는데, 과사에서 계속 있어야하다보니 과제나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시기마다 다르긴 하지만 특히 시험기간엔 더 없는 편이라 생각합니다.

Q. 학과 사무실 근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김0은 학우 : 전에는 학교에 있을 곳을 떠돌았다면, 이제 제 자리가 생긴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ㅎㅎ 전에는 춥고 더운 곳에 있었다면,, 이제 따뜻하고 시원한 곳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ㅎㅎ 이바쇼가 생긴 느낌 !!!

박0서 학우 : 학과 공지사항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 공강 때 어디갈지 헤맬 필요 없이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 다른 일반 알바와 비교하여 체력적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반대로 생각보다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0은 학우 :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 꼽자면 매일 8시 55분쯤 출근해야 한다는 것...? ㅎ 사회인이 된다면 당연하겠지만!! 아직은 힘들어요. ㅎㅎ 매일 1교시를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ㅎ,,, 이제는 적응됐어요!

박0서 학우 : 이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과사가 넓진 않다보니 좀 폐쇄적인 공간에서 계속 자리에 있어야한다는게 생각외로 스트레스를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다 정도? 물론 카페 갔다오는 등의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하는 건 괜찮아요!

Q. 근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나 질문은 무엇인가요?

김0은 학우 : 조교님 어디 계세요?

박0서 학우 : 과사 근로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돼?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긴하네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학과 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성실한 사람으로 눈도장 많이 찍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Q. 근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김0은 학우 : 월드컵 때 같이 모여 축구를 본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ㅎㅎ사소한 것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다 같이 밥 먹고 혈당 스파이크 방지를 위해 산책을 간다거나, 메가 커피 가서 맛있는 메뉴를 찾는다거나 ㅎㅎ

박0서 학우 :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기 보단, 소소하게 재밌는 추억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교쌤이랑 장난 치는 것도 가끔 재밌고, 가끔가다 졸업생 분들이 들렀다 가시기도 하는데 그게 기억에 남기도 하네요.

Q. 사무실 근로 학생만 아는 학과 사무실의 TMI가 있을까요?

김0은 학우 : 조교님의 커피 마실래? → 메가커피 사줄게 ㅎ 배고프지 않냐? → 밥 먹자 'Ya! Ya!'로 시작하는 노래가 있는데, 조교님이 갑자기 '야, 야~' 하면서 저희를 부르세요. 누군가 '네?' 하고 대답하는 순간 그 노래를 틀어서 놀리시는데, 저희는 10번 정도 속았어요.. 이제는 눈치챕니다 ㅎ(근데 아직도 노래 제목은 몰라요..)

박0서 학우 : 천장에 매달려있는 말랑이가 터졌다... 흰색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떼어냈습니다...

Q. 근로 학생이 뽑은 사무실 필수템은 무엇인가요?

김0은 학우 : 담요용!!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에어컨이 강할 때 가끔 춥더라구요,, ㅎㅎ

박0서 학우 : 포스트잇? 모든 알바도 마찬가지지만,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업무를 까먹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Q. 근로 학생이 생각하는 우리 과 사무실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김0은 학우 : 언제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고, 조교님이 반겨주신다 ㅎㅎ 츤데레이십니다!

박0서 학우 : 많은 학생들이 탐내는 커피머신이라고 하면 안되겠죠?.... 커피가 참 맛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조용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학과 사무실 근로를 지원하기 전에 꼭 알고 가면 좋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0은 학우 : 생각보다 교수님들을 자주(매일) 뵙는다는 것 .. ㅎ

박0서 학우 : 위에도 말했지만, 학교에서 있는 시간동안 제한되는 점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정해진 공간에서 계속 있어야 하고, 교수님이나 조교님, 다른 학생들 자주 마주치는 곳이다 보니 기본적인 예의나 태도는 늘 신경 써야 해요. 대신 급한 부탁도 종종 있어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고, 그만큼 학과 사정을 제일 빨리 알 수 있다는 장점이 함께 따라와요. 성실하게 학과 생활을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과사에 일할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Q. 학과 사무실 근로를 추천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김0은 학우 : 외향적이고 살가운 성격이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서류들을 처리하다 보니, 꼼꼼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침 일찍 와야 하니, 아침잠이 적으시면 유리합니다 !

박0서 학우 : 밝고 성실한 사람? 그리고 일을 까먹지 않고 하는 꼼꼼한 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교님 아래서 일을 하고, 교수님들도 자주 들어오시고 여러 사람들이 과사무실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회성이 좋으신 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학과 사무실 근로를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김0은 학우 : 로또도 사야 당첨된다 !! 외향적이고 꼼꼼한 성격이라면 어서 오십쇼!!

박0서 학우 : 다른 알바보다 학교 다니면서 병행하기엔 편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망설여진다면 일단 해보세요~

혹시 학과 사무실 근로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 인터뷰를 통해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준생에서 재학생이 된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

에디터·디자인
곽나림

들어가며

여러분 편입이라는 것에 대해 아시나요? 다니던 또는 졸업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 3학년으로 입학하는 것이 편입입니다. 우리 학과에도 매년 새로운 편입생들이 들어오고 있고 올해도 어김없이 저를 포함한 여럿이 인천대 학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게 이 아이 소식지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인천대 편입을 다짐하고 학과 홈페이지를 공부하듯 보고 있던 중 2024년도 아이 소식지를 보게 되었고 그 속에 편입생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이 학과에 편입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흔적을 본 것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기뻤습니다. 반가움은 상상하게 만들었고 상상은 꿈이 되어 힘을 주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이 나와 같은 사람에게 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편입을 잘 알지 못 해도 우리의 이야기로 다양한 감상을 얻어갈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올해 편입생 3명이서 나눈 대화를 인터뷰 형식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배경을 가지며 삶을 살아내겠지만 모두가 선뜻 하지 않는 시도로 원하는 곳을 이루어낸 우리의 사연은 늘 우리의 눈물 버튼이 되고 술자리의 안주가 되고 행복감의 땔감이 될 만큼 소중합니다. 각자의 새로운 세상에서 서로가 만나 행복에 겨워 웃기도 울기도 하는 저희의 한 조각을 꺼내 적어봅니다.

Q. 우리의 인천대는?(첫·현인상, 상상 등)

A. 먼저 학과 이름이 예뻤습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루길 기원합니다.'라고 적혀있는 걸 보고 야사시(やさしい)함을 느꼈고 동시에 내 꿈을 이루게 해줄 학교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저 행복합니다. 상상은 안 붙을 것 같은데 상상하는 게 괴로워서 안 했습니다.

A. 인천에서 줄곧 살아온 저에게 첫인상이라 함은 면접 때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곳을 '내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학 생활의 표본을 즐기고 있는 느낌이라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편입을 준비하면서 편입 이후의 생활을 상상하는 것도 모자라 벌써부터 우리 학과의 교환학생 제도 같은 것까지 찾아보면서 1년을 버텼습니다.

Q. 편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A. 잘 살아보고 싶어서. 새로운 운명 같았고 수많은 우연들이 겹쳐서인 것 같습니다.

A. 저는 처음에 학과 보다 인천대라는 학교에 너무 오고 싶었어요. 전적대에 입학하기 전부터 편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라는 질문에 대해 고군분투하던 중 신내림처럼 일본 문화에 빠지게 되었고 내가 현재 좋아하고 관심있는 쪽으로 가봐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인천대의 일본지역문화학과를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하고 싶고 가고 싶다고 생각이 되는 '나의 선택'을 해보고 싶어서. 삶의 방식을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편준생에서 재학생이 된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

Q.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면접 썰.

A. 이거 꼭 넣어줬으면 좋겠어. 배가 너무 고파서 눈물이 나고 당이 너무 떨어지고 지쳤는데 이 석 교수님의 따뜻한 말을 듣고 완전 터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콜릿 같은 거좀 챙겨와야 한다.

A. 1월 15일 오하아사가 1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말.
"우리 본 적 있죠?" 이 문장 이후로 머리가 하얘져서 기억이 안 납니다.

A. 교수님 한 분의 질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해 3번이나 다시 물으셨고 다른 교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셔서 겨우 대답해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두유를 챙겨가서 배고픔은 괜찮았는데 수면을 포기해버린 탓에 면접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다가 겨우 정신 차리고 들어갔다는...

Q. 24학번이 된 우리가 25학번이 될 그대들을 위해.

A. 파이팅입니다. 성장하고 싶으면 무조건 오십시오.

A. 일지문에 온 이상 '적당히'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는 농담이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꿈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다 환영합니다.

Q. 일지문에서 편입생으로 지내본 첫 학기 후기!

A. 벼농사 짓는 기분으로 '수확 성공'. 그리고 '재밌었다.' 장면 장면이 다 기억에 남고 정신 없이 지나간 이 3개월이 벌써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기분도 조금 느꼈던 것 같고요.

A. '로망 실현'. 기대 만큼 좋았다. 환상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처음이 가장 '처음 다운 처음'이랄까요. 처음이라는 설렘을 이곳에서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너무 대학생 같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한 것 같아."

Q. 편입생에서 재학생이 될 우리는?!(다음 스텝, 꿈, 미래 모습 등)

A.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A.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늘 목표와 꿈이라는 것에 시달렸으니 이제는 흐르듯 살아가보고 싶달까요.

A. 지금은 이 파라다이스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장 크고요. 졸업 후엔 일본에서 살아보면서 완전한 타지를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디자인. 오민준
삽화. 오지민



편집자 주: 본 인터뷰는 부전공생을 대상으로 기획되었으나,
인터뷰 이후 인터뷰이의 부전공생 신분이 삭제되었음을 알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이름, 학번, 본전공)
: 곽동혁, 20학번,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학교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본전공 외에 다른 활동도 하시나요?
: 현재 9학기를 마치고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일본지역문화학과 수업만 9학점 수강했으며, 일본지역문화학과 비공식 소모임 주경야독(酎傾夜誦)의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에는 본교 국제교류과에서 주관하는
일본 자매대학생 초청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의 버디로 8월 초에 활동할 예정입니다.
본 전공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전공 수업을 이수하여,
수학과 졸업시험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비 겸 생활비를 위해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입시 수학 과외를 학교생활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지역문화학과를 부전공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 4학년이 시작될 무렵, 수강할 수업이 부족해 수강신청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평소 관심있던 일본에 대해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일본지역문화학과에서의 수업을 일반선택으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수학 외길로 4학년이 되어 인문학의 이응도 모르던 제가, 열의 가득한 교수님들께 인문학을 배우고 겪어보니 일반선택으로 남기기엔 아깝다고 느꼈고,
제대로 수업을 들어보고 싶어 부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부전공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하셨어요?
: 4학년 1학기 성적에서 제 눈으로 직접 A+을 보고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전공하자고 결심했습니다.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가족, 친구, 본전공 동기들)
: 졸업은 언제하려고 그런 선택을... /
수학이 일본과 무슨 시너지가 있는지

본전공이랑 일본지역문화학과를 연결 지어서 생각한 부분이 있었나요?
: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융합교육을 콘셉트로 삼던 학교였습니다.
그 영향인지 수학과 일본학, 혹은 일문학을 엮어보려는 시도를 해본 적
이 없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무리수인 부분들이 많아서,
학문을 융합하여 사고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 일문과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 처음 들은 일문과 수업은 남상욱 교수님의 일본근현대문학강독이라는
수업이었습니다. 일본어로 된 단편 소설들을 읽는다고 들어 살짝 걱정스
러웠지만, 기초적인 한자는 읽을 수 있고, 어렵거나 모르는 한자도 앞뒤
문맥을 통해 유추할 수 있어서, 수강신청할 때에만 해도 큰 걱정 없이 장
바구니에 수업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개강하고 소설집을 펼치자, 저는 물론이고 일본인 지인들도 모르
고 어렵다는 한자어, 화어(和語), 야마토고토바(大和言葉)가
꽤 많았어서 매 주 진땀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수업 방식,
소설의 내용, 배운 지식 등은 너무나 값졌기에 양질의 수업을
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만큼 난이도도 어려웠던 수업이었습니다.



본전공 수업과 비교했을 때 수업 분위기나 방식이 달랐나요?
: 본 전공 수업과 다루는 내용의 결은 다르지만, 수업 방식은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내용을 교수님께 전해듣고,
이에 관해 궁금한 것을 질문하며 본인만의 내실을 다져나가는 것이지요.

다만 수학은 간단히 말하자면 정답으로 향하는 길이 정해져 있고, 인문학은 주장과 근거, 논리가 철두철미하다면 무엇이든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느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할지도 잘 모르겠고,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도 모르겠어서, 공부의 방향성을 확립하는 것이 본 전공에 비해 다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별개로 '무엇이 좋은 질문인가'에 대한 기준이 본 전공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고 느낄 때가 간혹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인문학의 특성이자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일문과 학우들과 잘 어울리시나요? 친해지기 어렵거나 어색한 점은 없었나요?
: 일반선택으로만 수업을 듣던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조용히 수업만 듣고 졸업하자는 생각이었어서 다른 학우분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많이 신경썼습니다. 그런데 일문과 학우분들께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보이는 학과에서 수업을 들으러 온 제가 신기해보이셨는지, 점차 한 분씩 말도 걸어주시고 인스타그램도
물어봐주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점점 일문과 학우분들과 친분을 쌓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 관심이 많아서인지, 공통 분모도 많고 사교적인 학우분들이 많으셔서 친해지기 어렵거나 어색한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5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일문과만큼 학우분들께서 모두 친절하시고,
리액션 좋고, 긍정 에너지가 피어나는 학과를 본 적이 없네요.
日文科大好きです(笑).



지금까지 들은 일문과 수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이 있다면요?
: 질문 중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순전히 흥미로 부전공생이 된 입장에서 모든 수업이 인상 깊고 재미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고르자면,
신은진 교수님께서 강의해주신 아카데믹일본어2,
이석 교수님께서 강의해주신 일본문화콘텐츠비평, 현대일본문화론이 생각나네요. 분량 상 상세히 언급하지 못해 죄송하지만, 박진한 교수님, 남상욱 교수님, 이호상 교수님의 강의도 매우 즐겁게 수강했기에, 수강을 고민하는 일문과 학우분들이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기를 추천합니다.

아카데믹일본어2는 어학 능력을 기르고플 때 너무나도 좋은 수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험만을 위해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아카데믹일본어2에서 배운 것만으로 2025년 겨울에 JLPT에 응시하여 N1을 취득했습니다. 이에 신은진 교수님께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카데믹일본어1을 수강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석 교수님께서 강의해주신 두 수업은 모두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깊게 파고드는 수업입니다. 개인적으론 일본문화콘텐츠비평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문화적, 컨텍스트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현대일본문화론은 전후 일본 사회의 변천사와 엮어 해석하는 느낌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문과를 전공하시는 학우분들이 으레 그렇듯, 애니메이션 등의 서브컬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런데요.
서브컬처의 근간을 탐구하고픈 분들께 굉장히 추천하는 강의입니다.
이석 교수님의 팬으로서 사심이 담겨있긴 합니다. 가끔 교수님의 강의가 그리울 때면, 교수님께서 출연하시는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곤 하는데요.
서브컬처에 관심있으신 분께는 이 콘텐츠도 추천합니다.



반대로 예상과 달라서 당황했거나 어려웠던 수업이 있었나요?
: 작년 3월, 개강하자마자 들었던 수업이 박진한 교수님의 일본도시사였습니다. 수강신청을 할 때만 하더라도 단순히 일본 도시의 역사에 대해 배우는 수업인줄 알고 지식을 쌓아갈 생각에 흥미진진했습니다만, 교수님의 저서를 읽고 학생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수업하며, 종강할 때 즈음엔 소논문까지 작성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레포트라곤 과학 실험 보고서가 전부였던 제게는 조언이나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치 않았어서, 소논문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막막했던 기억이 있네요.

부전공 이수 요건을 채우는 게 생각보다 고되거나 여유롭다고 느끼시나요?
: 부전공 필수 이수 수업인 일본문화콘텐츠입문, 일본지역학입문, 일본문학비평을 포함해서 21학점만 이수하면 되기에, 저처럼 졸업을 앞둔 시기에 충동적으로 부전공생이 된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널널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학점이나 성적 면에서 본전공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나요?
: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학생의 열의와 성실함이 중요한 것 같고요. 수업에서 얻어가야할 것들을 잘 캐치했고, 그게 과제, 시험에 잘 드러나면 성적을 잘 주시는 것 같습니다. 노력한 만큼 학점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바라본 일본지역문화학과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 예전에도 일문과에 관심이 살짝 있었어서, 교수님과 같이하는 프로그램이나 소모임이 굉장히 많은 학과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학과 내부적으로 끈끈한 학과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일문과 학우들이 본전공생과 다르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나요?
: 개인적으로 느낀 바로는 다들 개성적인 자아라고 할까요, 자신만의 세계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인지 무슨 활동을 하든, 어떤 수업을 듣든, 진심으로 임하는 일문과 학우분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도 많이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여기서 영감을 받아 제가 맡은 일에는 항상 「本気」로 임하고 있습니다.

일문과만의 분위기나 색깔이 있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 칼슘, 스트론튬, 바륨, 구리, 마그네슘의 공통점을 아시는지요, 이들은 모두 「花火」에 쓰이는 원소들입니다. 형형색색의 빛깔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느낀 일문과의 분위기 또한 그렇습니다. 개성적인 학우분들이 모여서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모습이 마치 아름다운 불꽃놀이와도 같더라고요.

부전공을 선택한 걸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후회는 없습니다. 많은 걸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문과 학우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 따스하게 외지인을 대해주신 모든 일문과 학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에는 대학생만이, 대학생일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으니, 많은 경험을 해보시고 후회없이 졸업하시어 사회로 진출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에디터 : 김예나
디자인 : 오지민

인천대에서 보낸 특별한 봄, 일본인 교환학생이 전하는 한 학기의 기록

2026년 3월, 일본에서 새로운 교환학생들이 인천대학교에 찾아왔다. 낯선 한국 땅에서 새로운 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끼고 있을 이들을 만나보았다. 한국을 선택한 특별한 계기부터 재밌고 힘들었던 기억, 그리고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말까지. 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줄 일본인 교환학생을 만나보자.

PREVIEW **READ MORE**

본 인터뷰는 이치고 학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Q. 교환학생을 가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처음에는 그저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가고 싶었는데, 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에 대해 배우며 필연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공부만으로는 알 수 없는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져서 교환학생을 결심했어요.

Q. 왜 많은 대학교 중에서 인천대학교를 선택했나요?

A. 인천대학교는 어학당이 아닌 학부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선택했어요. 어학당에서 만나는 해외 친구들 뿐만 아니라 학부 수업을 통해서 한국인 친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한국인 친구가 생겼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비가 비싸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실제로 인천대학교에 오니 사람이 너무 많지도 않고 길거리도 예뻐서 서울보다 더 지내기 편한 것 같아요.

Q. 학교 시스템 중에서 일본과 제일 다르다고 느껴진 것이 있나요?

A. 가장 다르다고 느껴진건 축제에요. 한국과 일본의 축제가 완전 달랐거든요. 특히 밥과 술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주점이 있다는 것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주점이 없고, 술도 거의 팔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아이돌이나 아티스트가 여러 팀이나 출연한 것도 놀랐어요. 무대도 정말 커서 콘서트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런건 정말 한국의 대학생들이 부러워요.

Q. 이곳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A. 저는 주로 학식을 먹는데 거의 매일 2~3개의 메뉴에 매운 음식이 나와요. 일본에서는 매운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어서, 매워도 맛있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그리고 일본 음식이 그리워졌어요. ㅎㅎ 생각보다 한국에는 일본 음식이나 과자가 많았지만, 맛이 똑같지 않거나 먹고 싶은 것이 전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 음식이 그리워질 때도 있어요.

Q. 한 학기동안 가장 인상깊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A.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MT에요. 일본의 대학교에서는 MT나 비슷한 행사가 없어서 정말 신선하고 즐거운 경험이 되었어요. 평소에 말할 기회가 없는 학과 사람들과도 교류 할 수 있어서, 원래 친했던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도 생겨서 정말 기뻤어요! 다같이 게임을 하거나, 바다에 가거나, 밥을 먹고 새벽까지 떠들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Q. 교환학생 선배로서,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했으면 좋겠어요. 교환학생에 대해서 상담을 받거나, 현지에서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보다 나은 교환학생 생활을 보낼 수 있어요. 물론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자신을 위한 것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는 공부나 준비 등으로 힘들겠지만, 지금 여기서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보답 받을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힘내세요!!

INTERVIEWE

Exchange Student

2026 Spring

✈ Thank you!

종강 후 나를 채워나가는 일상



일본지역문화 학과의 여름방학 하면 당연히 단기 문화 체험, 히비키, 아와레를 비롯한 소모임 활동만을 조명하기 쉽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여름을 보내진 않는다. 여기 한 학우가 방학을 맞이하는 자세를 알아보자.

김시연.

방학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간이다. 학기 중에는 바쁜 일정에 쫓겨 하루를 보내기 바빴지만, 방학이 되자 비로소 나만의 속도로 구성해 나가는 여유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일본지역문화학과 학우들의 여름방학은 보통 단기문화체험을 중심으로 흘러가고는 하지만, 이 글은 그와는 관련 없는 일본지역문화학과 2학년 한 명의 개인적인 방학 생활을 소개하는 글이다.

종강 후 바로 평소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고 있다. 나는 방학 중이지만 일본지역문화학과 학과사무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덕분에 학산도서관이 가까워 휴게시간마다 틈틈이 들러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읽고 있다. 학기 중에는 과제를 위한 자료를 찾는 목적으로만 도서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방학 중에는 오직 나의 관심사에 따라 책을 골라나가는 시간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독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집이 가까운 학우들이라면 방학 중의 학산도서관을 한 번쯤 방문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 학기 중에 비해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쾌적한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학기 중에는 과제에 치여 영화관에 갈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 그래서 방학이 시작한 뒤로 보고 싶었던 영화들을 하나씩 찾아보고 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다양한 삶을 만날 수 있게 해 주는 점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같이 가자고 먼저 제안해 주는 고마운 친구 덕분에 서울로 현대미술 전시 또한 여러 곳 보러 다니고 있다. 아직 식견이 좁다 보니 작품을 봐도 별다른 의미를 읽지는 못하고, '느좋이다'('느낌이 좋다'의 줄임말이다) 는 정도의 감상만 하게 된다. 나에게 미술은 아직 많이 어려운 분야인 듯하다.

돌이켜보면 거창할 것 하나 없이 놀기만 하며 보내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분야를 경험하며 나만의 속도로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내고 있다.

디자인. 이은서

2026 1학기 아이 사진첩

일본지역문화학과 학우 여러분, 1학기 수고하셨습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순간순간들을 아이가 담아보았습니다.

2학기도 좋은 추억을 많이 쌓기를 바라며 모두 화이팅입니다!



축제 시작 전 친구들과 셀카 ㅎㅏㅎ



주점 알바생 도촬사진



동기들과 거울 사진



인문대 뒤 운동장에서 비눗방울 불기



을왕리 바다 앞에서 게임!



땅바닥에서 고기굽는 중..ing



토토로 친구들과 함께!



대동제 1000% 즐기는 중

